

월간 가든인 1월호

January 2016

Garden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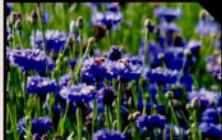
특집
기사

가든인 추천 정원용 식물 씨앗 30선



Gardenin Maintenance

가든엔씨앗 / 씨앗 발아력 테스트, 수례국화
연재 / 야생화 생산, 연구기지 지상중계



Gardenin Plants

정원화로 좋은 우리야생화 / 복수초
관목시대 / 무늬병꽃나무



Gardenin Design

실내정원의 크래프트 / 자연부산물을 이용한 모빌
COLOR IN THE GARDEN / Blue Flowers



Gardenin Culture

도시농업 / 도시농업의 6하원칙
정원과 아이들 / 정원에서 놀자



시클라멘(Cyclamen)

Gardenin Information

이달의 추천도서 / 교토의 정원



ISSN 2288-1719



9 772288 171000

10,000원

에코홀 시스템 (특허 제10-1429481호)

Echo 에코블럭

수직의 웅벽!
이제 정원의 개념으로 바뀝니다. 답답했던 웅벽,
이제는 자유롭게 식재가 가능한 아름다운 웅벽으로 탈바꿈합니다.



Echo 방틀 용도
저수호안의 방틀, 하천호안,
식생호안, 사면보호,
세굴방지, 화분용

Echo 에코웬스

아름다운 노출 콘크리트에 식물을 직접 심을 수 있는 화분입니다.
엔틱과 모던함을 동시에 표현가능합니다.



Echo 웬스 용도

광장, 계단, 주차장,
도로중앙분리대, 경계용으로
입체적 디자인이 가능한
신개념 실용화분

측면에는 관목을 심어 안정감을 유지하면서 윗면 상단에는
관목, 야생화 또는 일년초를 복합식재하면 좋습니다

구 입 문 의



벽화수주식회사

경남 함양군 안의면 황마로 61-169(황곡리 2191) / T.055-962-7991 F.055-962-7901



CONTENTS

4 이 달의 포커스 - 코레우리

Gardenin Maintenance

- 6 가든인레터 - 1월은 한 해를 계획하는 달
- 8 겨울을 위한 정원관리2 - 채종, 보온, 전정
- 10 정원의 일기 - 텃밭정원의 시작은 씨앗에서 III
- 14 가든엔 씨앗 - 씨앗 발아력 테스트, 용기, 수레국화
- 18 연 재 - 야생화 생산, 연구기지 지상중계

Gardenin Plant

- 22 정원 속 보이네 -
꽃향유, 분홍바늘꽃, 절굿대, 큰항새풀
- 26 Special Issue - 가든인 추천 정원식물 종자 30선
- 34 관목시대 - 무늬병꽃나무
- 36 서봄 정원나들이 - 2015년 돌아보기
- 38 테마가 있는 식물이야기 -
상록양지꽃, 무늬글리세리아, 거미줄바위솔, 물리니아, 차이브, 벨가못
- 42 정원화로 좋은 우리야생화 - 복수초
- 46 이명호의 야생화 - 나팔꽃

Gardenin Culture

- 48 생활 속의 도시농업 - 도시농업의 6하원칙
- 52 허브엔테라피 - 필리핀 일랑일랑 국가프로젝트
- 54 정원과 아이들 - 정원에서 놀자
- 56 세계의 식물원 - 쉬니게플라테
- 58 정원을 꿈꾸는 사람들 - 플로라 하우스
- 62 특집 - 조경가든대학 그린아카데미 7기 졸업현장

Gardenin Design

- 66 정원다이어리 - 겨울을 맞이하는 아파트 정원
- 70 칼럼 - 세계의 정원, 혼합과 혼성의 융복합식재로
변화하고 있다
- 74 실내정원의 크래프트 - 자연부산물물을 이용한 모빌
- 76 COLOR IN THE GARDEN - Blue Flowers

Gardenin Information

- 80 가든인 생생정보
- 81 GARDEN & BOOK - 교토의 정원

Gardenin

Gardenin 월간 1월호

이 달의 포커스

코레우리 (Coreuri)



미니볼호박 Miniball pumpkin
품종출원번호 102015000564



레몬파크 Lemon Park's
품종출원번호 102015000564



모닝스타 Morning star
품종출원번호 102015000543



버진 Virgin
품종출원번호 102015000540



미니볼루비 Miniball ruby
품종출원번호 102015000532



미니스커트 Miniskirt
품종출원번호 102015000544



살몬링 Salmon ring
품종출원번호 102015000555



애플링 Apple ring
품종출원번호 102015000534



아이보리파크 Ivory Park's
품종출원번호 102015000538



골든볼18호 Golden ball 18
품종출원번호 102015000546



오렌지글로브 Orange globe
품종출원번호 102015000535



오렌지파크 Orange Park's
품종출원번호 102015000547



크림글로브 Cream globe
품종출원번호 102015000531



젠틀맨 Gentleman
품종출원번호 102015000537



핑크글로브 Pink globe
품종출원번호 102015000533



화이트파크 White Park's
품종출원번호 102015000539



이브닝스타 Evening star
품종출원번호 102015000565



핑클 Finkeul
품종출원번호 102015000541



옐로우링 Yellow ring
품종출원번호 102015000556

코레우리는 우리나라가 개발한 신품종 정원식물로
일본을 비롯하여 유럽으로부터 로열티를 받고 있는 품종이다.
위 사진들은 새롭게 개발된 품종들로
2016년도에 선보일 예정이다.
구입문의: 우리꽃연구소 031-634-7990

가든인 레터

[Gardenin Letter]



1월은 한 해를 계획하는 달

1월의 정원은 한산합니다.

지난 1년동안 모든 힘을 쏟아부었고 동면을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정원은 새로운 만남을 위해 보이지는 않지만
부지런히 땅속에서 새단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얀 눈을 벗삼아 매서운 겨울바람을 등에 업고 추운 겨울을
헤쳐나옵니다.

봄, 새순이 나오고 다시 꽃이 피고 3월, 4월, 5월.....

매년 계절의 순환을 통해서 우리의 정원은 더욱 건강한 모습
으로 탄생됩니다.

글 사진 편집실 그림 박미영

1월 당해 식재할 종자, 종묘 구매 또는 사전 점검 / 실내식물 적절한 환기/ 저장 알뿌리식물 확인(곰팡이 유무)

2월 초화류, 채소류 육묘상에 파종 / 보리밭 웃거름 주고 밟아주기 / 실내식물 진딧물 방제

3월 정원식물 마른 가지 커팅(3월말)/ 꽃양귀비 봄파종 / 클레마리스 순정리 / 묘목 식재 / 상추 파종, 마늘 웃거름

4월 정원식물 식재 및 솎아주기 / 연못 물 빼고 정리정돈 / 초화류 삼목 / 춘식구근 식재(칸나, 꽃백합 등)/ 채소정원 퇴비 및 경운

5월 일년생 초화 직파 / 복합비료 살포 / 화목류 전정 / 잔디깎기(양잔디 주2회, 들잔디 주1회) / 텃밭 채소 파종 및 열매 채소 정식

6월 잡초 제거 / 병충해 방제(진딧물, 응애, 나방류) / 생울타리 관목 전정 / 봄 개화 식물 꽃대 제거 / 장마철 대비 배수로 관리 / 과채류 지주대 세우기 및 유인하기



7월 이른 봄에 핀 꽃 채종 / 1차 정원식물 커팅 및 살균제 살포 / 장마후 연못물 교체 / 비에 젖은 정원도구 닦아서 보관 / 화분식물 완효성 비료 시비 / 2차 제초

8월 2차 정원식물 커팅 및 살균, 살충제 살포 / 잔디밭 정리 및 복합비료 살포 / 배추, 무, 당근 파종

9월 종자 채종 / 장마와 고온에 죽은 식물 제거 / 삼목 및 분주에 의한 번식 / 봄꽃 식물(금낭화, 꽃잔디, 매발톱 등) 식재 / 김장배추 웃거름

10월 추파8종자 파종(꽃양귀비, 보리 등) / 채종종자 건조 / 배추, 무밭 충분한 물주기 / 마늘 심기

11월 추식구근 식재(튤립, 수선화 등) / 마지막 종자 채종 / 연못 물높이 최소 30cm유지(겨울기간 물고기 생존을 위한) / 펌프 등 동파 예방 / 김장배추, 무 수확(텃밭 작물의 마지막 수확기)

12월 내한성 약한 식물의 벗짚 또는 부직포 보온 작업 / 마른 줄기 커팅시 20cm 남기고 작업



가든인 정원사의 겨울을 위한 정원관리2

글 사진 편집실



재 종

미처 채종하지 못한 야생화 종자는 내년엔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종자꼬투리를 조심스럽게 전정가위 등을 통해서 자른 뒤 잘 말린다. 말린 종자는 비닐봉투 등에 담아 냉장보관하여 내년엔 파종하면 된다.



잘 익은 두메부추 종자를 지르는 모습.



채종 후 종자를 말리고 있는 모습(좌: 메키네시아 / 우: 산부추)

전정하기(커팅)

잎이 갈변하면서 정원이 지저분하게 보이는데 어떻게 정리를 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식물에 따라서 조금은 차이가 있어 주의할 사항을 포함해서 설명드리고자 한다.



전정물을 이용하여 갈변된 지상부를 정리하는 모습.

낙엽성의 식물은 10~20cm정도 남기고 지저분하지 않을 정도로 잘라주는게 일반적이다. 그리고 자른 줄기로 식물체를 덮어주는것도 좋은 방법이다. 여기서 주의할점은 붓꽃과 같이 봄에 꽃을 피우는 식물은 이미 겨울눈에 꽃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너무 짧게 자르면 식물체는 죽지 않아도 꽃이 피지 않거나 약하게 핀다. 일반적으로 자르지 말고 봄에 새순이 나기 전에 자르는 것이 좋다. 만약에 지저분하게 보인다면 최소 20cm를 묶어 보온의 효과와 입체미를 연출할 수 있다.

억새를 비롯한 그라스의 경우도 갈변된 식물체 자체로도 겨울 관상 가치가 있어 잘라줄 필요가 없지만 그이유 외에도 그라스 대부분은

식물체 하부에 봄눈을 가지고 있어 갈변된 식물체를 자르지 않고 봄에 잘라 주어야 한다. 상록성의 식물은 대부분 그대로 두어도 되는데 일부 잎이 갈변된 부분을 정리하거나 옷자라 잎을 보기 좋게 정리해주면 좋다. 내한성이 약한 상록성 관목은 부직포 등으로 보온해 주어야 된다.



1. 향나무류의 잎을 전정해준다.
2. 갈변된 실루가 이삭잎을 따준다.
3. 억새 등 그라스류는 겨울경관, 동해방지를 위해서라도 봄에 지르는 것이 좋다.
4. 나무 자라 조경석을 가려버린 수호초 일부를 정리한다.
5. 붓꽃의 경우 동해방지를 위해 30~40cm남기고 지른 뒤 묶어주면 단정해 보인다.

부직포를 이용한 식물의 보호

내한성이 약한 식물들은 벚꽃이나 부직포를 이용하여 보온을 해주어야 겨울을 안전하게 날 수 있다. 품종에 따라 다르지만 어렸을 때 내한성이 약한 향나무, 측백나무 등의 상록성관목은 하얀 부직포를 이용해야 한다. 겨울에도 광합성작용을 하기 때문이고 한편으로는 조형미를 연출하는데도 안성맞춤이다.

수국의 경우도 겨울에 지상부의 눈이 얼어 매년 잎은 무성한데 꽃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가지마다 하얀 부직포로 감싸주면 보온 뿐만아니라 조형미도 느낄 수 있게 해준다.

수국보온



잎이 진퇴 잎과 줄기를 깔끔하게 정리해준다.



하얀 부직포로 줄기마다 끝까지 잘 감싸준다.



겨울 조형미도 느낄 수 있도록 처리해 준다.

정원사의 일기

(Gardener's Diary)

가드너 김시용

전 천리포수목원 근무

영국 The Sir Harold Hillier Garden 연수

영국 RHS Garden, Wisley Diploma in Practical Horticulture Programme 졸업

텃밭정원의 시작은 씨앗에서 Ⅲ

골라내는 씨앗

골라내는 씨앗에는 가지과 채소 중에 파프리카, 가지, 고추가 있고 박과 채소중에 수박, 호박이 있다. 이들은 모두 열매채소이다.

채종하는 방법은 가장 상식하고 잘 익은 것을 따서 그늘에 두고 후숙시킨다. 그 다음 같이 쪼글쪼글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칼과 접시를 준비해 반으로 가른다. 그리고 씨앗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수저로 긁어낸다.

물에 한 번 가볍게 씻고 물에 뜨는 씨앗을 체로 건져 버린다. 밑에 가라앉은 충실한 씨앗만 골라 종이 위에 퍼 그늘에서 잘 말린다.

파프리카

과명: 가지과(Solanaceae)

학명: *Capsicum annum L.*

원산지: 열대 아메리카

씨앗 수명: 5년

>> 채종을 위한 재배

파종	심기	개화	열매	채종	갈무리
2월 중	5월 초	5월 중	6월 초	7월 중	7월 말~10월 말



① 모종 심은 지 한 달 후(6월 초)



② 열매가 제법 크게 달렸다.(8월 중순)



③ 열매 하나에서 받은 씨앗으로 키웠는데 몇 년이 지나니 열매의 모양이 다양하다.(9월 초)



④ 같은 모양의 열매를 가진 파프리카는 언제나 나올까?(9월 중순)

재배

파프리카는 열대 아메리카가 원산지로 씨이 트려면 온도가 섭씨 20~30도여야 한다. 보통은 설날을 전후로 물에 담가 침종(浸種)을 한다. 침종 후 일주일 정도면 아주 작고 하얀 눈이 나오는데, 먼저 나온 씨이 뿌리가 된다. 작은 포트에 바로 심기도 하고, 삼목 상자에 가식을 했다가 한 번 더 옮겨심기를 하기도 한다. 키우는 방법은 고추와 같다고 보면 된다.

고추와 마찬가지로 서리 피해가 완전히 없을 시기에 본밭에 아주 심기를 하는데, 중부 지방의 경우 보통 어린이날을 기점으로 심게 된다. 고온성 작물이기 때문에 비닐 멀칭을 해주면 더욱 빨리 자란다.

채종

파프리카는 피망이나 고추와 마찬가지로 자가수분(自家受粉)같은 꽃이나 같은 개체의 꽃에 의해서 수정되는 작물이다. 파프리카와 피망의 구분은 대개 색깔로 한다. 자라는 모습이나 열매의 모양은 거의 비슷하지만, 열매가 어느 정도 자라면 피망은 녹색을 그대로 유지하고, 파프리카는 빨강, 노랑, 주황 등 다양한 색으로 바뀐다. 피망도 따지 않고 그대로 두면 빨갱게 익지만 열매의 크기는 파프리카에 비해 작은 편이다.

자가수분 작물이지만 곤충에 의한 교잡이 간혹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 품종을 같이 심을 때는 한랭사 등으로 구분을 하는 것이 좋다. 계단밭에 심거나 밭과 밭 사이에 키가 큰 작물을 심어 날아드는 벌레를 막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확실하게 교잡을 막으려면 200미터 이상의 거리를 둔다.

씨앗을 받을 묘목은 튼실하고 병이 없는 좋은 열매를 맺은 포기를 고른다. 열매는 제 색깔이 나고 충분하게 익을 때까지 포기에 매달린 채로 둔다. 잘 익은 열매를 수확하고 나면 그늘에서 일주일 정도 후숙시킨다. 그 뒤 과실을 반으로 갈라 종자를 빼낸다. 땅이 촉촉한 चे나 종이 위에서 바삭바삭해지도록 말린다. 종자를 물로 씻을 필요는 없다.

많은 양의 씨앗을 받기 위해서는 열매를 믹서기에 넣고 물을 조금 부은 다음 저속으로 간다. 종자는 밑에 가라앉고 과육이나 섬유질은 위로 떠오르므로 떠오른 것을 버린다. 물에 가라앉은 씨앗은 물기를 잘 빼고 충분히 말린다.

가지

과명: 가지과(Solanaceae)

학명: *Solanum melongena L.*

원산지: 인도

씨앗 수명: 5년

>> 채종을 위한 재배

파종	심기	개화	열매	채종	갈무리
2월 말	5월 초	6월 중	7월 말	8월 말	9월 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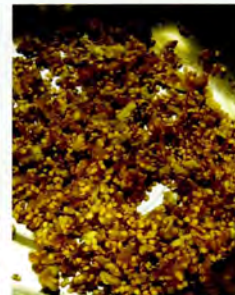
① 어린 모종일 때는 더디게 자란다.(6월 중순)



② 암술대가 수술대보다 긴 장주화(長柱花)가 많아 열매가 잘 열린다.(8월 말)



③ 제법 여름었지만 조금 더 갈색으로 변할 때까지 그대로 둔다.(8월 말)



④ 영근 씨앗을 골라낸 모습(8월 말)

재배

가지는 텃밭에서 배놓을 수 없는 아름다운 채소다. 보송보송한 털이 덮여 있는 잎에는 진한 보라색의 잎맥이 선명하게 드러나고, 노란색과 푸른색이 도는 라벤더 빛의 꽃은 더운 여름 텃밭에 시원함을 더해준다. 가지 열매 모양은 다양하다. 달걀 모양의 흰색 가지에서 길쭉한 보라색 가지에 이르기까지 20여 종이 넘는다. 더운 여름 텃밭에서 흘린 땀을 식혀주는 보양식이기도 하다.

가지는 과채류 중에서도 고온을 좋아한다. 하지만 섭씨 30도 이상에서는 열매 달리는 것이 좋지 않다. 토양 적응성도 커서 토양을 잘 가리지 않지만 유기질이 풍부하고 토심이 깊은 토양 조건에서 잘 자란다.

가지는 손지르기 방법에 따라 수형을 다양하게 만들 수 있어 화분 식재에도 잘 어울린다. 꽃열매를 먹기 위해 재배할 경우, 4인 가족을 기준으로 서너 그루만 있어도 충분할 정도로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인도가 원산지인 만큼 더운 여름을 좋아하지만 한여름의 불볕 더위에서는 약해진다. 차광을 하는 등 시원한 환경을 만들어준다. 가지의 영양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서는 꽃을 차근차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암술머리가 수술보다 짧은 단주화(短柱花)가 많다는 것은 영양분이 부족하다는 뜻이므로 토양 상태에 따라 보충해줄 필요

가 있다. 보통 정상적인 꽃은 암술대가 수술보다 약간 긴 장주화(長柱花)가 많다.

채종

가지는 자생지에서는 여러해살이 식물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추운 겨울을 나지 못하기 때문에 1년생으로 재배되고 있다.

다른 가지과 채소들과 마찬가지로 자가수분을 하지만, 곤충들에 의해 품종 간의 교잡이 약간 일어난다. 이를 막기 위해 400미터 정도 거리를 두고 심으면 좋지만, 토지가 좁아 여의치 않을 경우는 꽃에 봉지나 망 등을 씌워서 곤충의 접근을 막거나 품종과 품종 사이에 키가 큰 작물을 심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씨앗을 받기 위한 가지 모종은 잘 자라고 병충해도 없는 것을 고른다. 열매는 매끄럽고 광택이 나는 것에 표시를 해 두었다가 껍질 색이 갈색으로 될 때까지 그대로 놓아둔 다음 수확한다. 한 품종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가지를 확보하고 싶으면 여러 포기에서 하나씩 수확해 씨앗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수확한 열매는 더욱 부드러워질 때까지 그늘에 놓아서 후숙시킨다.

부드러워진 과실은 물속에 넣어 과육을 손으로 으개면서 종자가 떨어지도록 한다. 과육은 물과 함께 흘려보내고 씨앗만 체에 받쳐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씻어낸다. 다른 채소에 비해 씨앗의 발아율이 낮은 편이므로 온도와 습도가 잘 맞는 곳에서 보관한다.

고추

과명: 가지과(Solanaceae)

학명: *Capsicum annum L.*

원산지: 남아메리카

씨앗 수명: 5년

>> 채종을 위한 재배

파종	심기	개화	열매	채종	갈무리
2월 중	5월 초	5월 중	6월 말	7월 중	7월 말~10월 초



① 흰색 고추 꽃(7월 말)

재배

고추 꽃은 유난히 맑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새하얗다. 신선한 잎은 이른 봄에 따서 데쳐 먹을 수 있고, 녹색 열매와 빨간 열매가 한 나무에서 익어가는 모습은 식물을 돌보기에 충분하다.

고추에는 매운 맛을 내는 캡사이신(capsaicin) 성분이 있다. 캡사



② 토종 고추인 칠성초는 고추열매가 통통해서 쏘아차고도 골린다.

이신은 지금까지 위를 자극해 소화기 건강에 나쁘다고 알려져 있었으나, 최근에는 지방을 분해해 비만을 방지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우리나라 재배 면적의 34%를 차지하는 고추는 자생지에서는 여러 해살이 식물이다. 열대성 작물이기 때문에 햇빛을 좋아하며 여름 동안의 성장이 가장 눈에 띈다. 장마가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비 피해를 입어 탄저병에 걸리기도 한다. 이를 막기 위해 첫 가지가 Y자 모양으로 갈라지는 부분 아래의 잎은 모두 따내서 지면으로부터 튀어 올라오는 빗물이 잎에 닿지 않게 한다. 다른 방법은 두둑과 두둑 사이의 고랑에 호미를 심어 진딧물의 천적인 칠성무당벌레의 서식처를 만들어주는 것이다.

재종

고추는 자가수분 작물이다. 약 70%는 자기 꽃가루받이에 의해 수분이 되고, 나머지 30%는 다른 꽃에서 꽃가루를 받아 열매를 맺는다. 가능하면 품종 간의 거리를 많이 두거나, 여의치 않을 경우는 한 해에 한 품종만 재배하는 것이 좋다. 5월 초에 고추를 심으면 생육 온도가 낮아 더디 자라지만, 6~7월이 되면서부터는 눈에 보일 정도의 속도로 빠르게 자란다.

꽃은 이른 아침 6시부터 10시 사이에 피고, 오전 8시부터 12시 사이에 가장 많은 꽃가루가 날린다. 고추가 익어가기 시작하면, 고추의 크기, 모양, 병충해가 없는 것, 수량성 등 품종이 지니고 있는 특징들을 잘 간직하고 있는 포기에서 열매를 수확한다. 잘 익은 고추를 보기 좋을 때 수확해서 일주일 정도 그늘에서 후숙시킨다. 열매를 가위로 반으로 가르거나 손으로 갈라내고 씨앗을 골라낸다. 고추의 매운기가 손에 닿으면 며칠 동안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손끝이 아프기 때문에 비닐장갑을 끼고 골라내는 것이 좋다. 씨앗을 골라낸 과육은 그대로 햇빛에서 잘 말렸다가 고춧가루로 만들어서 먹으면 된다.

수박

과명: 박과

원산지: 남아프리카

학명: *Citrullus vulgaris* Schrad.

씨앗 수명: 5년

>> 재종을 위한 재배

파종	심기	개화	열매	채종	갈무리
4월 초	5월 초	5월 말	6월 중	8월 중	8월 말~9월 초



① 낙엽사이로 자라나는 수박영묘(5월 말)



② 텃밭에 심어진 수박(8월 중순)



③ 먹고 남은 씨앗을 받으면 된다. (8월 말)

재배

생각만 해도 신이 나는 수박! 가느다란 줄기에 어떻게 그렇게 큰 열매가 달리는지 신기하기 짝이 없다. 녹색 바탕과 검은 줄무늬가 만드는데는 자연이 만들어낸 경이로운 조합이다.

열매에 수분이 많아 더운 여름을 식혀주는 대표적인 과채로 알려져 있지만 실은 빨간 과육 속에 빼곡히 들어 있는 까만 씨앗도 큰 보물이다. 수박 씨앗은 동맥경화 예방에 이용되기도 하고, 단백질이나 칼슘, 인, 철, 카로틴, 비타민 등의 영양소도 많이 들어 있어 씨앗을 채취하기 위해 수박을 재배하는 나라도 있다고 한다.

노지에 수박을 키우면 씨앗을 받기 어렵다. 꽃이 한창 필 때 장마가 겹치기 때문이다. 수박은 햇빛이 부족하면 암꽃이 열매를 맺는 확률이 줄어들고 암꽃이 작아지는 등 생육 상태가 불량해진다. 낙화(落花) 및 낙과(落果)가 많아져 착과(着果)가 되더라도 품질이 떨어진다. 열매가 큰 만큼 한 번 줄기가 뻗으면 움직이는 것을 싫어한다. 순 지르기를 할 때는 그 점을 유의해야면서 작업을 한다. 이어짓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처음 수박을 재배하는 곳을 골라 심는 것이 좋다. 토종 수박 중에는 과육이 노란 종류도 있어 흥미롭다.

채종

수박은 수박 이외의 박과 작물과 교잡하지 않지만, 간혹 멜론과 교잡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의한다. 보통은 꿀벌이 꽃가루를 옮기지만 순수한 품종의 수박씨를 얻기 위해서는 사람이 직접 꽃가루

를 옮겨주는 인공수분을 한다. 수채화 붓에 수술의 꽃가루를 묻혀서 암술머리에 발라주는 방식이다. 노력에 비해 성공률은 75%로 낮은 편이다.

품종 간의 교잡을 막기 위해서는 900미터 정도의 거리를 두고 심는다. 꽃이 피고 수분이 되면 40일 후에 열매 수확이 가능하다. 열매가 달려 있는 꼭지 부분이 시들고 손으로 두드렸을 때 둔탁한 소리가 나면 수확기다. 완숙할 때까지 2~3일 정도 후숙시킨다.

수박을 반으로 가르고, 숟가락이나 손으로 씨앗을 골라내거나 또는 과육을 먹으면서 씨를 뱉어낸다. 소쿠리에 넣어서 물로 깨끗하게 씻은 다음 잘 말린 후 보관한다.

호박

과명: 박과

원산지: 중남아프리카

학명: *Cucurbita* spp.

씨앗 수명: 5년

>> 재종을 위한 재배

파종	심기	개화	열매	채종	갈무리
3월 말	5월 초	5월 말	6월 중	9월 초	9월 중순~10월 말



① 어린 묘종(5월 초)



② 한창 무성한 모습(8월 중순)

재배

흔히 얼굴이 못난 사람을 가리킬 때 '호박 같다'라는 표현을 쓴다. 호박이라 하면 대부분은 옛날부터 선조들이 재배해온 늙은 호박을 연상하게 되는데, 품종에 따라 크기나 색깔이 다양하다.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애호박만 하더라도 그리 크지도 않고 매끄러워 얼마나 예쁜지 모른다. 우리나라에서는 노랑고 늙은 호박을 산후조리와 몸의 붓기를 빼는데 약용으로 주로 이용한다. 늙은 호박에는 비타민 A와 전분이 많이 들어있다. 호박은 특히 잎이 무성한 채소이기 때문에 질소 비료를 너무 많이 주면 낙과(落果)할 수 있다. 다른 채소에 비해서 꽃이 유난히 크지만 그 크기에 비해 꽃가루가 많지 않아 벌이나 나비 혹은 바람에 의한 꽃가루받이만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풍성한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붓을 준비한 후 아침 일찍 텃밭으로 나가자. 그리고 호박의 꽃가루를 옮겨주는 벌과 나비가 되어 보자. 번거롭기는 하지만 그보다 큰 기쁨을 맛볼 수 있을 것이다.

채종

호박은 다른 작물에 비해 교잡이 잘 생긴다. 물론 한 장소에 한 품종만 심으면 별 문제가 없지만 여러 품종을 한곳에 심으면 생각지 못했던 모양의 호박이 달리는 것을 볼 수 있다. 한 품종의 순수한 씨앗만을 받기 위해서는 품종 간의 거리를 400미터 정도 두는 것이 적당하다. 장소가 넉넉하지 않을 경우는 씨앗을 받을 포기의 암꽃에 봉지를 씌운 후 인공수분을 해주는 것이 좋다. 새벽에 꽃이 피기 때

문에 가능하면 이른 아침에 꽃가루를 묻혀준다. 붓을 사용하거나, 수꽃을 따서 암술머리에 직접 묻혀주면 된다.

조선휘박의 경우는 열매가 어릴 때 꺾호박으로 수확해서 먹기도 하



③ 씨앗을 받기 위해 후숙 중인 애호박(8월 말)

지만, 씨앗을 받을 때는 늙은 호박이 될 때까지 그대로 둔다. 애호박도 요리하기에 적당한 크기가 되면 수확해서 먹고, 한 그루에 한 두 개 정도만 남겨 두었다가 씨앗을 받으면 된다. 단호박은 껍질이 울퉁불퉁해지면 수확하고, 씨앗을 받을 열매는 짙은 청색이 흐릿하게 될 정도까지 기다렸다가 수확을 하면 된다.

열매를 수확했으면, 열매 속에서 씨앗이 통통하게 살이 찌도록 그늘에서 2~3주간 후숙시킨다. 열매를 칼로 자르고 숟가락으로 씨앗과 그물 모양의 딱딱한 과육을 함께 발라낸다. 그 중에서 씨앗만 골라낸 후 물로 잘 씻어낸다. 이 과정에서 제대로 영글지 않은 씨앗들은 물 위로 떠오르기 때문에 흘러버린다. 씨앗을 잘 말린 후에 저장한다.

봄

이 시작되기전 3월20일 개화용

구근혼합매트

주식구근과 일년초의 혼성식재

다양하고 고급스러운 경관 연출

매트형태로 식재가 편리

문의 우리꽃영농조합법인 031.634.7990

3월10일~20일 사이에 개화되어 현장설치가 가능한 구근매트 예약주문 받습니다.

가든엔 씨앗

가정에서 식물을 키우는 방법으로는 씨앗을 구매하여 파종해서 기르는 방법과 묘종을 직접 사와서 화분이나 정원에 식재를 하는 방법을 선택한다. 특히 씨앗으로 파종해서 식물을 재배하는 것이 쉬운 것 같아도 초보 자들은 막상해보면 실패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이번에 신설된 '가든엔씨앗' 코너에서는 씨앗의 발아, 파종방법, 보관 등 일반적인 씨앗부리기에 관한 내용들과 씨앗으로 재배가 가능한 꽃들을 매월 1품목씩 묶어서 소개하고자 한다.

글 사진 편집실 그림 박미영

1. 씨앗 발아력 테스트하기

저장용기에 보관된 씨앗들이 오랜된 경우 발아력을 더 많이 잃거나 발아하기가 힘들어질 수 있다. 정원 식물에서 종자를 채취하였든 지난해 남겨놓은 씨앗을 포장한 경우든 키우기 전에는 그 씨앗들의 발아율을 검사하고 싶을 것이다. 몇몇 식물의 종자는 다른 식물들의 씨앗에 비해 보다 자연적으로 좀 더 긴 발아력을 가지는 경우도 있다. 대부분의 씨앗은 수확한 후에 서늘하고 건조한 저장고에 보관만 된다면 몇 년동안은 발아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할 수 있다. 일부 씨앗은 그 무게와 외관으로 발아력을 잃었는지 확인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발아 가능한 해바라기 씨앗은 얇고 주름이지지 않고 불룩하고 부드럽다. 만약 몇몇 씨앗들이 다른 씨앗들 보다 가볍다면 부패되거나 발아력을 잃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확실히 알고 싶다면 아래와 같이 검사를 해보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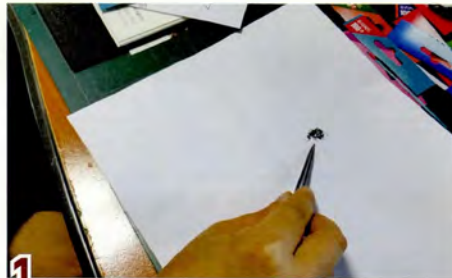
GardenIn TIP

1. 발아율과 발아세

발아율은 발아시험 전체기간동안(약3~4주)에 발아되어진 비율을 말하고 발아세는 일정기간(7~10일)동안 발아된 비율을 말한다. 즉, 종자의 발아력을 말할 때 발아율보다는 발아세가 중요한 판단기준이 된다고 볼 수 있다.

2. 종자 발아력 판단하기

검사한 총 씨앗수에서 발아한 씨앗 수를 나눠서 백분율로 계산한다. 만약 발아가 50%나 그 이상 진행되었다면 그 씨앗들은 발아능력이 있고 심을 수 있다. 만약 25~50퍼센트 사이라면 발아력이 있긴 하지만 좁은 간격으로 씨를 뿌려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만약 발아율이 25퍼센트 이하일 경우엔 씨앗들을 다 버리거나 매우 좁은 간격으로 씨앗을 뿌려야 그나마 몇 개의 식물이 자라는 것을 볼 수 있다. 더 많은 씨앗을 검사할수록 더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20개 이상의 씨앗을 검사하거나 만약 여유가 된다면 100개정도를 가지고 검사한다면 더욱 좋다.



1. 보관해 두었던 종자를 하단종이 위에 쓴 뒤 편상 등으로 100개의 종자를 골라낸다.



2. 테스트용 용기 바닥에 휴지 또는 발아테스트용 종이를 깔아준다. 적당하게 물을 적신 뒤 골라놓은 종자를 위에 올려 놓는다.



3. 적절한 온도(21도~26도)를 유지해주면서 2~3일이 지나면 씨앗을 확인한다. 만약 씨앗 감질 밖으로 솟아 오르는 것이 보인다면 발아가 되고 있는 것이다. 약 3~4주동안 계속해서 확인한다.

2. 용기

씨앗은 제대로 된 배수구멍과 물 담을 공간만 있다면 어떤 용기에서든 자랄 수 있다. 다만 키우기 알맞은 용기는 약 5~8cm 깊이가 되는 비교적 얇은 용기이다. 집에서 만든 용기나 가정용 용기, 직사각형 플라스틱판까지 모든 종류의 용기에 씨앗으로 키우는 것이 가능하다. 점토로 된 화분은 괜찮긴 하지만 몇몇 단점이 있다. 그 화분은 물을 잘 흡수 하는 것 같긴 하지만 흡수를 항상 습하게 유지 해주기 위해선 물을 자주 줘야 한다.



2. 더 많은 씨앗들을 파종하고 재배하기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는 큰 화분과 트레이 등을 사용하면 좋다.



1. 우유팩, 요거트통, 플라스틱컵 등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용기와 가든센터에서 구입할 수 있는 작은 화분 또는 공룡알 화분 등은 작은 양의 씨앗을 파종하기에 적합하다.



3. 옮겨 심기 어려운 식물들을 위해서 넓게의 씨앗을 토탄 화분(peat pot)에 씨앗을 파종한다. 그러면 옮겨 심는 도중 뿌리에 손상을 주지않고 통째로 땅에 옮겨 심을 수 있다. 오이, 호박, 가지, 멜론과 같은 것들이 토탄 화분(peat pot)에 적합하다.

GardenIn TIP



1. 파종을 위해 선택된 용기들이 바닥에 배수구멍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2. 용기를 사용하기 전에는 표백제로 희석한 물로 철저히 씻어 살균해준다.
3. 근래에는 예쁘게 포장된 용기에 흙과 씨앗을 담아서 물만 부어주면 가정에서 쉽게 재배할 수 있는 제품들이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다.

3. 수레국화 (*Centaurea cyamus*)

수레국화는 품종이 다양하다. 색상에 따라서 5품종(빨강, 분홍, 보라, 하양, 블랙)이 있고 키가 큰 종류와 작은 왜성종이 있다. 수레국화는 곤충에 의해 수분되는 타가 수분 식물이다. 만약 종자 저장에 위해서 한 종류의 순수종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한지역에 한 품종만 심어야한다. 만약 타가 수분이 일어나면 파란색이 우성이고 분홍색 그다음 하얀색 순서로 나온다. 수레국화는 빈번히 자연적으로 씨앗이 떨어져서 다시 그 자리에서 발아되어지기도 한다.



블루



레드



화이트



블랙

핑크



수레국화 종자

GardenIn TIP

1. 수레국화는 좁은 공간에서도 잘 크지만 숨칠수 있는 공간이 충분하다면 더 큰 꽃을 피울 수 있다.
2. 식물이 시기에 맞춰서 꽃이 지고 나면 씨앗을 맺는다. 씨앗이 익으면 바로 채종하는 것이 좋다. 너무 오래 기다리면 새들이 씨앗을 수확하기 전에 먹기 때문이다.

수레국화 씨앗정보

- 발아를 위한 최적 온도 : 섭씨 16~22도
- 식재간격 : 왜성종(15~20cm) 고성종(30~35cm)
- 최적온도에서 발아 시기 : 파종 후 7~10일
- 씨앗 보관 : 서늘하고 어두우면서 건조한곳

수확하기

씨앗 꼬투리가 쉽게 부서질 수 있어서 조심해서 자른 뒤 봉투에 넣으면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씨앗을 정선한 뒤에 저장하기 전 1~2주일 동안 펼쳐서 건조시킨다.



실내 육묘

수레국화는 묘종을 늦은 봄에 외부에 옮겨 심기 위해서는 그 전에 8주에서 10주간 실내에서 재배한다. 먼저 상자 또는 트레이에 씨앗을 뿌려놓는다. 씨앗이 발아되어 본 잎이 두 잎 정도 나오면 포트(작은 화분)에 옮겨 심어 뿌리가 돌면 외부노지에 옮겨 심는다. 트레이로 재배한 경우 초기에 세심한 물관리가 가능하다면 트레이묘를 직접 옮겨 심으면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노지 파종

1. 묘종을 옮겨심는 것이 쉽지 않은 경우 봄에 야외에 바로 파종하는 것이다. 땅을 갈퀴로 갈아서 부드럽게 만들어 놓는다.



2. 파종한 이후에 씨를 흙으로 살짝 덮고 물을 뿌려준다.



GardenIn TIP

수레국화는 가을(10~11월)에 노지에 씨앗을 파종해서 이듬해 봄에 꽃을 볼 수 있다.

수레국화 시리즈(5종)

1봉 3,000원
5봉 ~~15,000원~~ → 12,000원
배송비 별도



구입문의

우리꽃연구소 031.634. 0328

야생화 생산, 연구기지 생생 지상중계 연재-①



이제는 집근처의 꽃집이나 양재동 꽃시장 등에서 야생화, 일년생 초화류, 분화용 꽃 등을 쉽게 볼 수 있다. 다양한 꽃들을 보면서 이러한 상품들이 어떻게 만들어질까 궁금해 할 수도 있다. 공산품의 경우 공장에서 기계로 일률적으로 찍어낸다고 하지만 꽃은 살아있는 생물이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생산되고 출하되는지 꽃을 좋아하는 독자라면 한 번 방문해서 엿보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리라. 이런점에 착안하여 '가든인'에서는 1월부터 12월까지 야생화 농장의 1년을 속속들이 취재하여 독자들에게 지상중계하고자 한다. 2016년 1년동안 연재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글 사진 편집실 자료제공 우라꽃연구소

1월은 정리의 달

겨울바람이 스산하게 하우스를 감싸고 지나간다. 눈 덮힌 겨울농장은 화려했던 지난 봄, 여름, 가을 3계절을 뒤로하고 또다른 1년을 준비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먼저 그동안 생산, 출고하느라 바빠서 못했던 정리작업이 한창이다. 하우스 여기저기 이산가 족처럼 뿔뿔이 흩어져 있던 식물들을 다시 재정리하고 있다. 새로운 입주자들을 위해 보금 자리를 다시 찾아주는 작업이다. 일반적으로 야생화 및 다년초 들은 겨울에 별다른 난방이 필요치 않다. 기존 비닐하우스 한겹, 아니 노지에서라도 그대로 관리해도 무방하다. 단지 겨울동해를 입지 않기 위해 10월에 1회정도 반드시 관수를 해주기만 하면 된다. 식물의 지상부는 대부분 없어져 꼭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자연상의 식물들처럼 봄이 돌아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새순이 올라올 준비를 겨우내 소리없이 하고 있다.

농장에서 제일 골칫덩이 중의 하나가 잡초이다. 어디에서 그렇게 나오는지 제초를 해도해도 끝이 없다. 우선 그동안 하지 못했던 포트에 섞여있는 잡초제거가 우선이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잡초를 제거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쪽 하우스에는 바닥재 교체작업으로 한겨울에 땅이 뻘뻘. 기존에는 폐자재 카펫트를 재활용하여 하우스바닥재로 이용해왔다. 그러나 잡초씨앗들이 떨어져 카펫트에서 다시 자라 식물에 옮기는 경우가 다반사인지라 바닥재 교체가 필요했다. 바닥재로 UV처리된 제초매트로 교체중이다. 당장에는 높은 비용이 들지만 제초작업비를 생각한다면 결국 더 이익이라고 판단하여 교체를 단행하고 있었다. 이외에도 트랙터, 관리기, 포트생산기, 잔디깎기 등 1년동안 수고했던 생산용 기계들을 손질하고 세심하게 정비를 해주고 있었다.



빅스피본에 채소와 꽃을 심어 식재료로 또는 관상용으로 이용하고 있다.



바닥재 교체중인 모습



새로운 바닥재로 교체후의 모습



지금은 지상부는 없지만 봄의 새순을 위해 동면중인 관중



겨울동안 농기계를 세심하게 정비를 해주고 있다.

월동준비는 필수

하우스를 여기저기 돌아보다가 문득 하우스마다 눈에 띄는 것이 있다. 바로 벼짚이다. 무엇에 쓰는 물건인가. 바로 눈에 의한 피해를 막기위한 준비물이었다. 매년 방충매체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소식증 하나가 눈에 의한 농장 피해소식이다.



눈이 쌓이는 즉시 보행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로우더로 정리를 해준다.



겨울 눈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하우스마다 배치해둔 벼짚



동파방지를 위해 관수장치에 보온작업을 해준다.

하우스가 눈에 무너져 시설물이 파괴되고 농작물도 피해를 보게된다. 이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눈소식이 있으면 밤새 농장직원들은 비번을 서면서 예의주시한다고 한다. 이때 반드시 준비해 놓는 것이 벼짚이다. 유비무환이라. 눈이 쌓이는 것이 위험수위가 예상되면 재빨리 하우스안으로 들어가 준비된 벼짚을 태운다. 뜨거운 열기가 위로 올라가 하우스위의 눈이 옆으로 떨어지게 하기 위함이다.

미리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다. 그리고 동파될 수 있는 관수장치 등을 일일이 살펴 미리 보온작업을 하여 겨울월동준비를 철저히 해준다.

겨울에도 생산은 계속된다.

하우스육묘장에 발아되어서 올라오는 일년초 연두색 고사리손이 반갑다고 손을 내민다. 일반적으로 야생화는 2월하순부터 새롭게 생산이 이루어진다. 하지만 일년초를 비롯하여 특수한 경우 1월에도 생산은 시작된다. 일년초 초화류 중 3월부터 출하시키기 위한 꽃중에 비올라, 마가렛 등 이미 전년도에 파종에 놓았던 모종들은 포트작업을 해준다. 이 중에서 난방을 해야 할 것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구분하여 자리를 잡아준다. 또한 12월달에 준비한 튤립과 일년생의 혼성구근매트도 하우스안에서 봄을 위한 준비에 여념이 없다. 일부 품종들은 트레이에 미리 삽목을 하여 시간적으로 여유있게 준비를 하고 있다. 그리고 생산용으로 보관해 두었던 종자들을 육묘상자에 뿌려 발아율을 체크해서 그 해 파종하는데 참고로 한다. 외부는 한산하지만 내부에서 보여주는 1월의 생산기지는 여전히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포트에 옮겨질때까지 대기중인 마가렛 모종



봄 상품 생산을 위해 트레이에 삽목중이다.



봄 출하를 위해 벌써부터 준비하고 있는 상록잔디패랭이



생산용 종자 발아테스트



지열난방시스템이 설치된 하우스로 전기를 이용하여 여름에는 냉방이 겨울에는 난방이 되는 시스템이다.



생산을 위해 자동 포트생산기로 포트에 상토를 담는 모습



3월이 되면 시공되어질 벽면녹화제품을 미리 계약제배하고 있는 모습

우리꽃연구소
URISEED LAB
전화. 031.634.7990



클로버 초콜릿 행목
행복과 청운을 동시에 드립니다

하늘국화 금강석
금나와라 독막
금강석을 드립니다

2016년, 정원을 위해 계획하고 계신가요?
우리꽃에 문의 하십시오.

이젠 우리 정원에 맞는 상품종입니다.

"장기개화용" 봄부터 가을까지
쭉~~쑹니다!! 비료만 듬뿍!!

코레우리 우리드림시리즈, 하디시리즈, 골든볼시리즈, 링시리즈, 탕캐벌시리즈
아니 릴~수, 릴~수, 이럴 수 있는거야?
5월에서 11월까지 숨도 쉬지 않고 피워대는 꽃구름 꽃향기



에키네시아 레인보우
천상의 화색 5월부터 11월까지
어찌 그리 고울까요?



상록잔디패랭이
4월에서 11월까지 끝내준다.
순천정원박람회 바로 그 주인공



하늘국화
블루, 하양, 큰꽃, 애기별하늘국화
꽃방석, 말해 위해! 봐야 일지!
4월에서 11월까지 꽃방석인지
확인하면 바로



가우라
베이비레드, 베이비핑크, 베이비골드트리
나비가 날았을까? 잠자리가 앉았을까?
5월에서 11월을 날고 앉아 꽃피우는



가시가 많아도 꽃은 아름다운

절굿대 속 (Genus Echinops)

절굿대 속 식물은 일년생, 이년생 그리고 다년생 식물의 120여 종의 속으로 중앙, 서유럽에서 중앙 아시아, 인도, 그리고 열대아프리카의 산악지대의 덥고 자갈이 많은 언덕과 건조한 초지에 있다. 특히 이들은 대부분 건조한 지역에서 생존하는데 필자가 이란의 시락에서도 중국산동성의 바닷가에서도 대군락을 확인하기도 했다. 이들은 많은 대부분 우리의 엉겅퀴를 닮았지만 좀더 화색 혹은 하양의 털이 많고 강한 가시를 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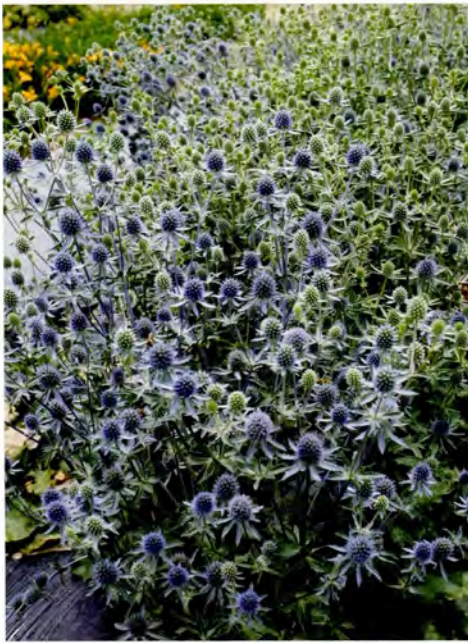
꽃은 볼 형을 하거나 옥수수수와 같이 생긴 형태의 두상화로 화색이 파랑, 화색, 흰색 등으로 가지 끝에 달린다.

매우 이국적이면서도 아름다움을 선물한다. 이들은 큰 화단이나 야생의 화단에 적합하다. 이들은 꽃꽂이와 드라이플라워로도 많이 이용하는데 매우 장식적인 가치가 있다. 내한성은 종류별로 다르긴 하지만 대체로 내한성은 있다.

이들의 식재 위치는 되도록 토양이 건조하고 물 빠짐이 좋은 양지에 재배하는 것이 좋지만 약간의 음지에서도 잘 자란다. 다만 잡초 성이 있으므로 꽃이 진 열매는 익기 전에 제거하는 게 좋다.

증식은 주로 종자파종에 의하는데 쉽고 많은 모종을 확보할 수 있다. 이른봄에 모판 혹은 트레이에 파종하면 쉽게 발아하고 좋은 품종의 경우는 휴면기 포기나누기 혹은 뿌리삽목을 통한 증식도 가능하다.

병충해는 강한 편이지만 진딧물에 의한 피해와 장마철 물 빠짐이 좋지 않는 곳에서는 부패위험이 높다.



향이 좋은 동양의 바질

꽃향유 속 (Genus Elsholtzia)

꽃향유 속 식물은 우리나라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식물들이다. 주로 일년생, 다년생 그리고 반 상록성이거나 낙엽성 관목과 아관목 35종의 속으로 중앙아시아와 동아시아의 건조하고 넓은 산허리와 길가에서 자란다. 이들은 이들의 향이 나는 잎과 가느다란 원추꽃차례 혹은 2개의 입술모양의 통꽃의 총상꽃차례를 감상 하기 위해 재배된다. 향이 너무 진한 종류도 있지만 대체로는 향기롭고 한약으로 많이 이용되기도 한다. 잎은 대생하고 창형에서 타원형의 난형까지 있다. 서리 피해가 있는 만생종과 서리에 약한 종은 온실에서 기른다. 서리에 내한성이 있는 것부터 서리에 약한 것까지 있다. 재배는 모든 배수가 잘 되고 햇빛이 잘 드는 비옥한 토양에서 기른다. 특히 나무꽃향유의 경우 관목과 같이 자라지만 이른 봄 약 20cm 정도를 남기고 잘라주면 새로운 가지 끝에서 아름다운 꽃을 피운다. 증식은 종자가 성숙하자마자 기온이 13℃ 이상 일 때 파종을 한다. 여름 꺾꽂이를 통한 증식이 비교적 용이하다. 해충 및 질병은 거의 없어 재배가 쉽다.





백두산의 정취를 품은 북방계

분홍바늘꽃 속 (Genus Epilobium)

일년생, 이년생, 초본 혹은 가끔 반상록성의 다년생식물로 잔디와 같은 포복경과 반 상록성 아관목의 200여 종의 속이다. 이들은 온대지역의 황무지와 버려진 땅, 돌이 있는 경사지, 강가의 자갈이 있는 곳과 북유럽과 캐나다 등 산록 지방의 돌이 쌓여 있는 곳과 초지에 넓게 분포되어 있다.

특히 분홍바늘꽃과 같이 우리의 백두산과 강원도 등지에 나는 아름다운 식물은 이들의 대표종이다. 이들은 분홍색 혹은 흰색의 꽃을 보기 위해 길러지며, 꽃은 단생하거나 엽액에 잎이 우거진 총상꽃차례에서 피고, 일반적으로 여름부터 가을까지 긴 기간 동안 꽃이 핀다.

잎은 선형에서 넓은 난형까지 있다. 바람에 의해 운반되는 종자와 포복경을 갖는 품종은 많은 종을 침입종으로 만들지만 이들은 가꾸어 볼 만한 가치가 있다. 양석정원이나 혼합 정원에 기른다.

*E. globellum*은 지피식물로써도 매우 좋다.

내한성은 매우 강하고 재배는 부식토가 풍부하고, 습기가 있는 땅에서 기르거나 배수가 잘 되는 토양이 좋다. 햇빛이 많은 양지 혹은 부분적으로 그늘이 진 곳에서 기른다. 고산식물의 경우 여름철 한낮에는 그늘이 있어야 한다. 꽃이 다시 피게 하고 씨앗으로부터 정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시든 꽃을 제거한다.

증식은 성숙하지마자 혹은 봄에 냉상이 된 화분에 파종을 한다. 가을이나 봄에 분주를 한다. 봄에 새싹을 이용해 꺾꽂이를 한다.

해충 및 질병으로 민달팽이, 달팽이, 녹병균, 흰가루 병에 의한 피해가 있을 수 있다.



구름 같은 무리 새

큰항새풀 속

(Genus Eriophorum)

빠르게 퍼지는 상록성으로 지하경을 갖고 늘 주변의 수생 다년생 식물의 20여 종의 속으로 유럽, 남아프리카, 북미, 동북아시아 백두산지대에서 발견이 된다. 이들은 얇고, 바늘같이 생긴 두터운 잎과 여름에는 많은 꽃이 핀 소수상화의 술 모양을 한 산형화서를 생산한다. 야생의 저수지의 옆이나 소택지 정원에 효율적이다.

내한성이 강하고 재배는 얇은 물가 옆의 산성토양이나 작은 소택지의 토탄성 상토를 이용한 수생식물 바구니에서 기르며, 빛이 충분해야 한다. 물 5cm 깊이까지도 살 수 있다. 증식은 주로 여름에 분주한다.



Special Issue

2016년 가든인 추천
정원용 식물 씨앗 30선

2016년 새해가 밝았다. 정원을 가꾸고 즐기는 독자들은 올해도 벌써 정원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 올해는 무슨 꽃을 심어볼까, 꽃시장에서 모종을 사서 심을까, 씨앗을 구매해서 파종해 볼까, 고민중이다. 가든인에서는 가정에서 종자로 쉽게 기를 수 있는 정원식물을 엄선하여 그 정보를 독자들에게 새해 선물로 대신하고자 한다.

글 서준혁 사진 편집실

1. 서양장구채(주머니꽃)

주머니속에 감춰진 아름다움

주머니속에 숨어있던 꽃이 하나둘씩 모습을 보입니다. 서로 마주보며 즐거운 듯 연신 이야기꽃을 피웁니다. 우리 야생의 장구채꽃과 형태가 비슷하네요. 키가 낮게 자라 줄기가 땅과 붙어서 나옵니다. 그리고 반구형으로 퍼져나오며 많은 꽃이 환한 웃음을 보냅니다.

파종시기:3-6월/개화기:6-10월/초장:30-40cm



2. 배초향(자이언트 히솅)

진한 향기, 한 입 베어물고

앞에서 보내주는 진한 향기가 좋습니다. 여름에 보는 하양색, 보라색으로 어우러진 꽃친구가 다정합니다. 꼬리모양의 꽃이 여름을 시원하게 해주네요. 잎의 향이 뛰어나 허브정원에 좋고 잎을 먹을 수도 있어 가정정원 재배에 좋습니다.

파종시기:3-7월/개화기:7-8월/초장:60-70cm

3. 에키나 스노우

이국에서 만난 눈같은 여인

솔방울처럼 봉긋 솟아오른 볼륨있는 몸매에 하얀색 원피스가 잘 어울립니다. 이국적인 고급스런 꽃은 정원에 또 한번 잘 어울리네요. 꽃이 지고 난후에도 솔방울 모양의 이삭이 아름다움을 이어줍니다. 비옥한 토양에서 재배하면 더 풍성한 꽃을 즐길 수 있습니다.

파종시기:3-9월/개화기:6-8월/초장:70-80cm

4. 비단둥자꽃

꽃비단이 펼쳐집니다.

톡, 톡, 톡, 작고마한 꽃들이 하나둘씩 피어나는 소리에 고개를 돌립니다. 대롱대롱 매달린 꽃들이 함께해서 보여주는 자태는 진분홍색 비단이 따로 없네요. 배롱나무 진분홍꽃이 생각납니다. 통풍이 잘 되고 물빠짐이 좋은 곳에서 생육이 양호하다는 거 잊지마세요.

파종시기:3-9월/개화기:5-6월/초장:40-50cm

5. 네페타

은은한 보랏빛 레몬향기

레몬향기 가득한 관상용 허브식물입니다. 은은한 보라색꽃도 향기 이상으로 매력적입니다. 때로는 키가 너무 자라 어느 순간 쓰러져도 상관없네요. 누운채로 보라색 자태와 향기를 그대로 유지해줍니다.

파종시기:3-9월/개화기:7-8월/초장:30-40cm

6. 백리향(타입)

향기 좋은 자주색 솜사탕

향기가 좋고 멀리까지도 그 향이 느껴지는 키 작은 향기식물입니다. 강한 향이 백리길 넘어서까지 난다고 해서 백리향이라고 부릅니다. 가지가 많이 갈라지고 옆으로 퍼져나갑니다. 보라색꽃이 솜사탕처럼 둥글게 그리고 풍성하게 피어올라 옵니다.

파종시기:3-9월/개화기:6-7월/초장:10-15cm



백리향(타입)



배초향(자이언트 히솅)



에키나 스노우



비단둥자



네페타

7. 백일홍

백일의 사랑, 영원한 사랑

당신의 순결한 마음을 민습니다. 그 마음을 생각하며, 꽃을 피웁니다. 100일동안 아름다운 꽃으로 그 마음을 지켜드립니다. 백일홍이란 꽃이 100일 동안 핀다는 말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리고 꽃말은 '순결'이네요.

파종시기:3~6월/개화기:6~10월/초장:40~50cm

8. 캘리포니아양귀비 혼합

캘리포니아의 아름다움

캘리포니아에서 태어난(원산지) 양귀비입니다. 무지개는 되지 못합니다. 하지만 5가지 색이 어우러져 무지개 그 이상의 양상블로 아름다움을 발산하는 양귀비입니다. 많은 꽃을 볼잔치에 올려놓으니 양분이 충분히 있어야 좋은 꽃을 보고 좋은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파종시기:9~4월/개화기:5~6월/초장:40~50cm

9. 아게라템

보라 불꽃, 하얀 불꽃, 한창입니다.

솜털같은 불꽃놀이가 펼쳐집니다. 보라색불꽃, 하얀색불꽃, 부드러운 불꽃친구들이 하나하나 올라와 살포시 꽃불을 밝힙니다. 꽃이 만개하면 다시 보라, 하얀 꽃이불로 변신하네요. 멕시코영경리라고도 불리기도 하고요, 서늘한 온도에서 꽃이 잘 핀다고 하네요.

파종시기:3~5월/개화기:5~9월/초장:25~30cm

10. 금어초

내가 사랑하는 가든 열대어

새로사온 가든 수족관에 주황색 금붕어 한 마리 보이네요, 분홍색 칼라테트라, 노랑색 구피 등등.. 제각각 아름다운 색을 뽐내며 자유롭게 헤엄치며 입을 벌리고 있네요. 배고프다고, 절화 및 화단용으로 이용되고요, 꽃의 모양이 헤엄치는 금붕어를 닮은 데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파종시기:3~5월/개화기:5~9월/초장:70~80cm

11. 백묘국

푸른 바다정원, 은갈치가 펴떡입니다.

반짝반짝 보기에 눈부신 은색바다가 눈앞에 펼쳐집니다. 은색으로 잎에 색을 입힌 걸까요. 은갈치가 펴떡 살아오를것만 같은 상상한 정원을 만들어 드립니다. 질감이 매우 좋아 디스플레이 할 때 다른 꽃을 더욱 돋보이게 해주는 친절한 이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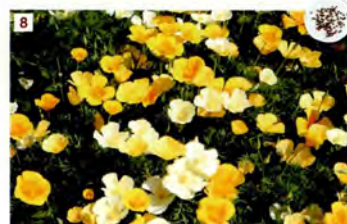
파종시기:3~9월/개화기:6~9월/초장:20~25cm



백묘국



백일홍



캘리포니아양귀비



아게라템



금어초

12. 공주 꽃

공주는 아름다워

'올해도 과꽃이 피었습니다.' 어렸을 때 즐겨 불렀던 동요 한편이, 추억 한편이 떠오릅니다. 이 과꽃은 키가 큰 종류로 공주(프린세스)처럼 우아하고 다복하게 겹꽃이 핍니다. 정원용 뿐만 아니라 절화용으로 이용해도 좋은 '공주 과꽃'입니다.

파종시기:3~6월/개화기:6~10월/초장:60~70cm



공주 과꽃

13. 다알리아

해맑은 꽃인사를 나눕니다

해맑은 웃음이 눈에 선합니다. 키 작은 어린 아이, 빨간치마, 분홍치마, 노랑치마 제각각의 치마를 입고 나들이 갑니다. 햇님이 반갑다고, 꽃친구들이 놀다가라고, 하지만 발길을 재촉합니다. 더 많은 이웃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키 작은 아름다운 다알리아를 보고 싶다고.

파종시기:3~6월/개화기:6~10월/초장:40~50cm



다알리아

15. 풍점초 로즈퀸

족도리 올린 로즈여왕

하루가 다르게 무럭무럭 자라 오르고 있습니다. 마침내 꼭대기 머리위에 아름다운 족도리를 얹어 놓은듯 화려한 정열의 꽃이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족도리꽃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꽃이 크고 빨리 자라며 장기간 개화하는 최상의 여왕(Queen)꽃입니다.

파종시기:3~6월/개화기:6~10월/초장:80~100cm



금잔화 '보름달'



풍점초 로즈퀸

16. 마가렛

하얀 붉은꽃이 내립니다.

작은 하얀 눈꽃송이가 한송이 한송이 내립니다. 봄 햇살을 받으며 초롱초롱 빛나던 눈꽃송이가 어느새 순백의 꽃무리로 봄을 가득 채웁니다. 작은 키에 오밀조밀하게 피어난 마가렛 눈송이로 봄의 정원을 장식하세요. 하얀 붉은꽃이 계속 내립니다.

파종시기:3~5월/개화기:5~9월/초장:25~30cm



마가렛

17. 설악초(유포르비아)

한 여름밤의 화이트 크리스마스

여름산에 하얗게 눈이 내립니다. 소복히 쌓입니다. 시원한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니 한 여름의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기대해도 되는 걸까요. 가을에도 눈은 녹지 않은 채 새하얀 단풍이 절정입니다. 하얀색 무늬로 뒤덮힌 잎은 그 어떤 꽃보다도 아름답습니다.

파종시기:3~6월/개화기:6~10월/초장:60~70cm



설악초(유포르비아)

18. 안개초 화이트

새하얀 물안개 피어오르는 아침에

이른 아침 눈 앞에 새하얀 물안개가 펼쳐집니다. 내 마음을 포근하게 감싸 안아줍니다. 무수히 많은 줄기에 작은 꽃이 모여 핍니다. 구름과 같이 피는 꽃무리를 바탕으로 다른 꽃들을 살짝 엿혀주세요. 더할나위 없이 최고의 앙상블을 만들어 드립니다.

파종시기:9~6월/개화기:5~10월/초장:60~70cm



안개초 화이트

20. 이베리스

달콤함, 입안 가득히

딸기맛일까, 자두맛일까 웬지 달콤한 알사탕같은 맛이 깃들여 있을것 같은 알록달록 꽃무리가 한아름 모여 피네요. 지중해 원산으로서 잎이 가죽 같은 질감을 주고요, 아름다운 꽃이 가득 피어나면 그 향기도 가득 피어나네요.

파종시기:9~5월/개화기:5~9월/초장:25~30cm



이베리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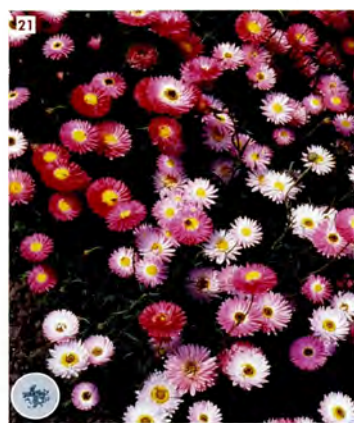
리나리아(애기금어초)

21. 로단세(종이꽃)

말린 꽃이 아닙니다.

데이지 모양의 꽃으로 색색의 색종이로 겹겹이 접어 만든 종이꽃 같은 느낌. 꽃잎이 마르지 않아도 꽃잎의 색과 모양이 종이 같다고 해서 '종이꽃'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로단세 100송이를 고이접어 당신의 정원속에 키워보세요.

파종시기:3~5월/개화기:5~10월/초장:40~50cm



로단세(종이꽃)

22. 미모사

새색시, 수줍어 마세요

수줍음이 많은 새색시입니다. 살짝 건들라치면 이내 잎을 다물어 버립니다. 밤에는 건들지 않아도 지레 겁먹은 듯 다시 잎을 살포시 닫아 버리기도 합니다. 신경초라고도 불리는 재미있는 브라질이 원산지인 관상식물입니다.

파종시기:3~5월/개화기:6~9월/초장:25~30cm



미모사

23. 꽃담배

이제 눈으로 피우세요

담배는 피우는 거 아닌가요? 이제 눈으로 관상하는 꽃담배를 즐기세요. 담배와 꽃과 잎이 비슷하지만 크기면에서 꽃은 크고 잎은 작습니다. 부드러운 색감의 꽃은 은은한 아름다움을 선사합니다. 이제 꽃담배와 함께 니코틴 중독에서 벗어나세요.

파종시기:3~6월/개화기:6~10월/초장:60~70cm



꽃담배

24. 니젤라

엘리자베스 시대로의 귀환

꽃과 열매가 아름다운 꽃입니다. 거슬러 올라가 엘리자베스 시대, 산장이나 정원의 주된 소재로 한 시대를 풍미했다고 합니다. 잎은 날개처럼 잘라지고 다양한 색상의 꽃이 매혹적인 남유럽산 꽃입니다.

파종시기:3~5월/개화기:6~9월/초장:40~50cm



니젤라

25. 오스테오스펠렘

너무 달콤한 화이트 미소

밤새 꽃피는 소리가 들립니다. 아침에 눈을 뜨니 눈부신 하얀색 꽃미소. 너무 화사한 그 느낌에 나도 모르게 외칩니다. '오! 스테오스펠렘'. 화분에 심어도 좋고 정원의 주 인공으로 모셔도 좋은 매우 고급스러운 꽃입니다.

파종시기:3~5월/개화기:5~9월/초장:20~30cm



오스테오스펠렘



플록스

26. 플록스

당신을 우리정원으로 초대합니다.

아름답다. 화려하다. 절로 감탄사를 연신 보냅니다. 가지각색의 강렬한 색감이 모여서 한 폭의 그림을 완성합니다. 많은 꽃을 피워냅니다. 더 좋은건 오랫동안 꽃을 유지해주어 화분용, 화단용 어디에 초대해도 좋은 꽃입니다.

파종시기:3-6월/개화기:6-10월/초장:40-50cm



앵초(마라고이데스)

27. 앵초(마라고이데스)

신세대 앵초, 풍성한 꽃잔치

사이좋게 모여있는 계란형으로 생긴 잎 속에서 꽃대가 올라옵니다. 여러개의 꽃대속에서 작은 꽃들이 웅기종기 매달려 꽃망울을 터트립니다. 꽃수가 많아 만개하면 풍성한 꽃잔치가 열립니다. 지속적으로 개화하여 장기간 관상할 수 있습니다.

파종시기:3-5월/개화기:5-9월/초장:20-30cm



한련화

28. 한련화

수줍은 미소에서 행복한 미소로

잎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연잎 처럼 둥글둥글 잎사이에서 노랑, 빨강 얼굴을 수줍게 곱웃으로 내보입니다. 꽃잎은 나팔모양을 하고 있고요, 알싸한 향기가 몸전체를 가득 채워요. 남미 북부 원산으로 덩굴성의 줄기에 행잉 바스켓으로 잘 이용됩니다.

파종시기:3-6월/개화기:6-10월/초장:30-40cm

29. 라일락 버베나

보라색 꽃잔치에 꼭 빠지다.

보라색 꽃물결이 서서히 밀려옵니다. 눈감작할사이 보라색 꽃잔치에 꼭 빠져버립니다. 뒤질세라 나비친구들도 한나절 소풍와서 시간가는줄 모르고 머물고 있네요. 여름부터 가을까지 오랜기간 꽃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번 경험하면 계속해서 큰 사랑을 받는 버베나입니다.

파종시기:3-6월/개화기:6-10월/초장:100-120cm



꼬리풀(베로니카)

30. 꼬리풀(베로니카)

초여름밤의 촛불잔치

따뜻한 봄날 끝무렵, 숨겨놓았던 꼬리를 내보입니다. 여름의 기운이 서서히 다가오면 반갑다고 꼬리를 흔들립니다. 어느새 촛불형태의 꽃이 피었습니다. 물기가 있는 비옥한 토양을 좋아하고 정원용으로 많이 쓰이는 대표적인 꽃입니다.

파종시기:3-9월/개화기:6-8 /초장:60-70cm



라일락 버베나

오아시스(박스정원)

출원번호 10-2014-0137480

무관리 NO!

옥상, 건물 앞, 교통섬, 베란다, 도로변 등
어디에서나 쉽게 설치 가능!!



오아시스 특징

1. 건물앞, 교통섬, 도로변, 공원 등지의 화단조성이 힘든 곳에 쉽게 설치가 가능합니다.
2. 암석가든형, 혼합가든형, 텃밭가든형, 등 다양한 유형이 있어 원하대로 선택가능합니다.
3. 설치가 편리하고 교체가 용이한 장점이 있습니다.
4. 저수판이 있어 1회 관수로 오랫동안 물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규격

구분	규격	*부가세 별도
		단가
오아시스	1,000×1,000×300	400,000
	1,000×1,000×400	500,000
	1,000×1,000×600	600,000

* 식물, 토양 별도 구매

* 10개 이상 구매 시 배송비 무료

오아시스(박스정원)의 유형

암석가든형

돌과 식물들을 조화롭게 배치한 암석가든



혼합가든형

다양한 식물들을 이용하여 조성한 미니정원



텃밭가든형

채소와 꽃들을 이용하여 연출한 도시텃밭형



우리꽃영농조합법인

구입문의 T. 031-634-7990

관목
시대정원의 필수선택 **병꽃나무(Weigel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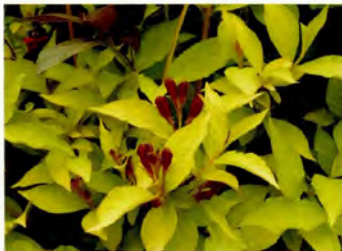
병꽃나무는 훌륭한 고급 정원수로 각광받고 있다. 꽃이 길다란 병모양으로 생겼다고하여 병꽃나무라 불린다. 생장이 강해서 빨리 자라며 높이 1~2m정도까지 자란다. 이번호에서는 색깔이 좋은 무늬종 병꽃나무 3품종을 소개하고자 한다.

글 사진 편집실 자료제공 열린식물원

잎이 아름다운 적엽, 황금, 황금무늬병꽃

병꽃나무는 낙엽활엽관목으로 우리나라 특산식물이다. 밑에서부터 많은 가지가 나와 큰 포기를 형성하고 생장이 매우 빠른 수종이다. 꽃은 4~5월경 잎 겨드랑이쪽에서 깔때기모양으로 모여 피는데 처음에는 황록색을 띠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붉은색으로 바뀐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특산식물은 분포지가 제한되고 까다로운 수종이 많은데 병꽃나무는 어디에서나 잘 자라는 관목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도로변이나 산지를 피복시킬 때 많이 사용되었는데 그만큼 척박한 곳에서도 잘 자라는 수종이다. 그리고 병꽃나무도 그 종류가 많은데 붉은꽃을 피우는 붉은병꽃나무를 비롯해 흰병꽃, 흰털병꽃, 노랑병꽃, 삼색병꽃, 무늬병꽃나무 등이 있다. 이번에 소개하고자 하는 수종이 잎의 무늬가 좋은 무늬병꽃나무이다.

무늬병꽃나무의 그 종류는 잎의 가장자리에 황금색 무늬가 선명하게 들어가는 황금무늬병꽃, 잎이 적색인 적엽병꽃, 황금색인 황금병꽃이 있다. 이 무늬병꽃 품종들은 누가 보아도 확연하게 눈에 띈 뿐만 아니라 무늬가 아름다워 관상가치 또한 뛰어난 수종이다. 적엽병꽃은 붉은색의 꽃을, 황금병꽃은 진분홍색의 꽃을, 황금무늬병꽃은 연한 분홍색의 꽃을 봄에 피우는데 잎의 무늬와 잘 어울리면서 보는 이의 눈을 즐겁게 해준다.



황금병꽃나무



적엽병꽃나무

생육이 강하고 군식, 열식 모두 좋은 수종

잎의 무늬가 좋아 녹지대 등에 무리지어 군식하면 좋고 차폐용으로 열식하여도 좋다. 특히 공원이나 아파트단지내 곳곳에 관목으로 적용하면 밝은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다. 내염성, 내공해성이 강하여 도심의 기후에 잘 적응하며 내음성, 내공해성이 강하고 양지는 물론 반음지에서도 잘 자라는 수종이다.

숙근지피식물의 경우 꽃도 중요하지만 점차 잎의 질감 또는 색깔이 좋은 식물이 인기를 받고 있다. 그 이유는 꽃은 대부분 한시기만 볼 수 있지만 잎은 3계절동안 계속해서 관상할 수 있으므로 그 가치가 폭넓어지고 있는 것이다. 관목도 마찬가지로 삼색조팝, 황금조팝 등 잎이 좋은 식물들이 점차로 그 사용폭이 넓어지고 있다. 그런면에서 뛰어난 무늬를 가지고 있어 관상가치가 뛰어난 무늬병꽃나무는 새로운 관목소재로 매우 가치가 있는 수종이라 할 수 있겠다.



황금무늬병꽃나무



적엽병꽃나무



황금병꽃나무



서봄과 함께 떠나는 정원식물 나들이



서봄

장래 최고의 가든디자이너가 되
기를 꿈꾸며 대한민국 하늘아래
꼭풍성충만한 아이

사진과 함께 되돌아보는 2015년 나들이



안녕하세요. 서봄입니다.
지난 한해 정원과 함께 식물나들이에 같이
해주시어서 고맙습니다. 2016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새로운 정원식물들을 소개하기 전에 송 한민 플랜트 어덜트
도 이번에는 작년에 같이 보았던 정원식물들을 사진과 함
께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바로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가우라베이비

작년 한해 꽃맛 같은 달콤한 한 해였습니다. 그만큼
인기가 많았었죠. 올해도 그 인기 이어볼까요! 작은
나비, 정원을 향해서 힘차게 날아갑니다.



풍접초

풍접초는 로즈, 바이올렛, 화이트, 체리 4가지 색상이 있어요.
기호에 맞게 선택하세요. 아니 라인별로 식재해서 무지개정
원을 만들어 보세요.



클레마티스

왜 이렇게 즐거울까요. 아름다운 꽃을 볼
수 있다는 기대감이 행복으로 다가옵니
다. 그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하늘국화 금방석

금방석이 작년에는 첫선을 보인 해라면 올해는 최대
히트상품의 해가 될거예요. 이제 반짝반짝 빛나는
돈방석이라고 부를까요.



코레우리

올해는 더 좋은 많은 품종들이 몰려온데요.
기대만발!! 빨리 만났으면 좋겠네요. 그 아
름다운 경관을 잊을 수 없어요.



그라스

몰리니아, 무늬새, 무늬억새, 왜성수크령 등등... 그라스는
너무 매력 넘치는 정원식물입니다. 특히나 가을에는 더욱
더...



클로버 초콜릿 행복

행복합니다. 초콜릿색의 행복클로버.
2016년 독자여분에게 행복, 행운, 사
랑을 모두 드리겠습니다.



후록스

색상이 아름다운 영원한 정원의 주
인인요. 주인공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꽃들이 호시탐탐 그 기회만 엿
보고 있지만 쉽지 않을거예요.



향나무류

자! 이제 상록의 아름다운 향나무류 품종들
이 정원으로 달려갑니다. 기존의 정원관목
들 긴장하고 기다리세요. 출발~

상록의 관목이 몰려옵니다

Juniperus(향나무류)

- 잎의 질감이 뛰어납니다.
- 상록으로 겨울가든에 최적의 소재입니다.
- 암석가든, 도심피복지, 아파트 등 어디에 적용도 좋은 전천후 관목입니다.



골드스타형



골드센형



블루카펫형



블루에로우형

구입문의

우리꽃영농조합법인

031-634-7990



테마가 있는 식물이야기 연재-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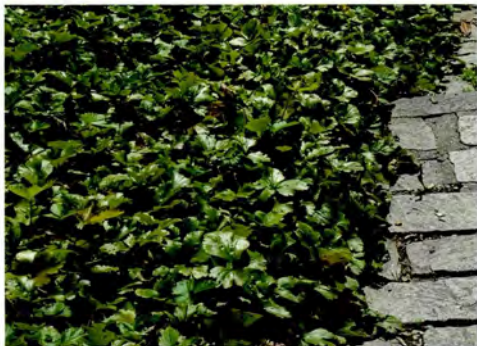
1. 음지식물의 이해와 적용

지피력이 좋은 상록성 소재 상록양지꽃

양지꽃은 종양지꽃, 솜양지꽃, 돌양지꽃 등 그 종류가 다양하며 대부분 *Potentilla*속이다. 하지만 양지꽃 중에서 중부 이북의 숲 속 빈터에서 자라는 다년초로 나도양지꽃이 있는데 이 종류로는 *Waldsteinia*속 인 것이 이색적이다.

이번호에서 소개하고자 하는 품종도 *Waldsteinia*속의 식물로 나도 양지꽃과 비슷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겨울상록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 이름을 상록양지꽃(*Waldsteinia lobata*)이라 명명해 보았다.

음지쪽에 적용할 수 있는 식물은 극히 제한되어있고 더구나 상록성의 식물은 수호초, 송악, 맥문동 등 그 종류가 손에 꼽을 정도이다. 이런 면에서 상록양지꽃은 음지에 적용할 수 있는 상록성의 식물로서 적용가치가 높은 품종이라 할 수 있다. 자라는 특성은 옆으로 런너를 뻗으면서 자라는데 매우 조밀하게 빨리 자라 지피력



이 뛰어나고 생육도 강건하여 병해충 등 특별한 관리 없이도 잘 자란다. 꽃은 5~6월경 노랑색으로 피고 화기는 짧으나 반면에 잎은 전체적으로 광택이 있어 질감이 좋아 잎 자체만으로도 관상가치가 있는 식물이다. 실제로 유럽등지에서 나무아래 지피식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도심속의 가로수 아래를 비롯하여 골프장, 식물원, 정원 등의 나무아래를 비롯한 음지지역에 군식하거나 수호초, 대사초류, 호스타류 등과 혼식해도 좋다. 음지뿐만 아니라 양지쪽에 적용하여도 무난하게 잘 자란다.

번식은 봄, 가을에 런너를 각각 떼어내어 트레이에서 키워 뿌리를 내린다음 포트에 옮겨거나 아니면 물관리에 신경을 더 써줄 수 있다면 바로 포트에 착상해주어도 된다.

위에 언급했듯이 생육이 까다롭지 않고 강건하기 때문에 새로운 음지식물로 적용을 적극 권장해본다.



Q&A

Q: 꽃양귀비는 언제 파종해야 좋은지요?

A: 일년생 꽃양귀비 종류는 대부분 가을에 파종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가을에 파종하여 발아된 잎이 4~5엽정도 된 상태로 월동하면 그 다음해 5월 중하순부터 꽃을 볼 수 있습니다. 지역별로 가을 파종한계 시기는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기북부 지역의 경우는 10월말까지, 중부권은 11월 중순, 남부권은 11월말까지 파종이 가능합니다. 물론 봄에 파종하여도 꽃은 피울 수 있지만 가을 파종때보다 약 2주정도 늦게 개화됩니다. 주로 사람들이 6월보다는 5월경에 왕성하게 꽃을 즐기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꽃을 일찍 피우는게 유리하기에 가을에 주로 파종을 하게 됩니다.

2. 수중, 수변식물의 이해

아름다운 무늬, 새로운 화본과 무늬글리세리아

글리세리아는 어릴 때 개울가에서 미꾸리를 잡거나 붕어를 잡아 아가미에 끼어오던 물가의 식물 중 '미꾸리괘이'라는 식물이 있다. 잎은 선이 굵고 대는 곧은 풀인데 이와 비슷한 무늬글리세리아는 수변은 물론이고 수심 20cm에서도 생육이 매우 좋은 신소재 식물이다.

최근 자연형하천을 복원하면서 수질정화는 물론 시민들의 쉼터로 가꾸기 위한 수변식물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으나 수변, 수중의 식물들이 아름다운 개화를 하는 식물이 적고 그나마 우리의 여름장마는 쓸어가거나 묻어 버리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최근엔 물억새, 매자기, 도루박이, 갈대 등 회복능력이 빠르거나 일부 묻혀도 쉽게 복원되는 식물들을 많이 적용하고 있다. 이런 하천 혹은 골짜기의 폰드주변에 아름다운 무늬를 가진 글리세리아를 소개한다.



무늬글리세리아는 땅속지하경으로 번식하며 잎이 혁질이고 두꺼우며 아름다운 무늬가 노랗게 들어있어 포인트 식물로 적용하면 매우 화려하다. 키는 60~90cm까지 자라고 줄기의 지하경의 발달로 땅아력이 좋아 조밀한 잎을 낼뿐만아니라 회복능력이 빠르고 남부지방에서는 반상록으로 겨울을 날 정도의 내한성이 강한 식물이다. 유럽의 경우 글리세리아의 무늬가 좋아 일반 공원 등의 화단에도 식재를 하는데 워낙 강건하고 아름다운 곡선의 무늬와 멋스러움을 가진 식물이기 때문이다. 특별한 관리는 필요없고 메뚜기 등에 의한 잎의 가식이나 여름철 고온기에 통풍이 잘안되거나 하면 지저부가 약간 내려앉는 것 이외에 간혹 나방의 유충이 줄기속을 파고 들어가 피해를 준다. 그러나 회복능력이 빠르므로 약제방제가 용이하지 않다면 한번쯤 잘라주는 것도 바람직하다.

화본과 무늬식물로 줄기생장이 빨라 자른 후 약 이주일이면 다시 아름다운 모습을 나타낸다. 이 식물은 물가에 심어도 자연스럽게 수심20cm정도까지의 지하경을 뿜으며 큰 포기를 이룬다.



3. 암석가든용 식물

암석위에도, 척박지에도 식물방석을 연출하는 거미줄바위솔

거미줄바위솔은 기타 많은 바위솔종류에 비해 덩치가 좀 작으면서 아주 조밀한 식물방석을 연출한다. 생김새는 바위솔과 비슷하지만 어린잎이 나오면서 잎 끝을 연결하는 하얀 실로 꼭 거미가 줄을 쳐놓은 듯한 모습이다. 건조에 매우 강하고 여름철에도 잘 잊무르지 않아 옥상이나 혹은 락가든, 그리고 분화, 분경용으로도 좋은 소재이다.

특히 봄에 잎 사이에서 많은 작은 개체를 생성시키면서 번식하는데 여름과 가을에도 계속된다. 1포기를 심어 일년만 가꾸게 되면 전체 직경이 약 10cm이상 크게 되고 2년정도가 되면 아이들 방석처럼 커진다.

아주 귀엽고 양증맞은 모습은 옥상조경의 앞 화단이나 락가든의 작은 돌 틈에 심으면 더욱 효과적인 모습을 연출할 수 있다.

번식은 아주 꽤나 작은 잎사이를 비집고 나온 작은 개체를 따서 주변에 꽂아주기만 하면 새로운 포기로 성장해 교육교재로도 이 용해 범익하다.





4. 화본과 사초과 식물로 대표되는 그라스

사계절 연줄이 가능한 그라스 물리니아

이번에 소개할 물리니아는 한국 야산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진퍼리새속의 식물로 산과들, 습지에서 자라며 유럽, 동아시아 원산의 식물이다. 하지만 물리니아는 한국자생의 진퍼리새와는 달리 줄기가 강건하고 포기의 형태가 좋아 조경용으로 적합하다. 물리니아는 내한성이 강하고 한국기후에도 적응이 잘 되어 전국 어디서나 사용 가능하다. 한국 자생의 진퍼리새중 형태가 좋고 관상 가치가 높은 것을 분리하거나 개량해 조경에 사용

해도 충분히 좋은 소재가 될 수 있다. 물리니아란 말은 '젖다, 움직이다'에서 유래되었다. 이름에서 보듯이 줄기가 여러개가 모여나며 길게 올라와 바람에 하늘하늘 흔들리는 것이 한국의 정서와도 잘 어울린다. 6~8월에 핀 꽃과 봄, 여름동안의 진녹색의 잎과 줄기는 매우 깔끔하면서도 시원한 느낌을 준다. 거기에 더하여 가을이 되면서 갈색 혹은 황금색으로 단풍이 들어가는 모습은 가히 일품이다. 그리고 겨울에도 그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여 봄부터 겨울까지 4계절 모두 시기별로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전천후 그라스 품종이다. 또한 대가 튼튼하여 웬만한 바람이나 비에 쓰러지지 않아 관리에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고급조경에 사용되어지는 그라스류 중 역사 모닝라이트, 역사 그린라이트, 무늬역새 등은 포기가 크고 형태가 좋아 단독식재, 포인트 식재에도 좋지만 물리니아는 잎의 길이가 짧고 줄기가 높이 솟

아 단독식재나 포인트 식재보다는 군식 또는 동선 옆으로 2~3 군식 또는 동선 옆으로 2~3줄로 열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좋다. 단지 ARI가든을 조성할 때에는 부분적으로 2~3포기정도 모아 심는 것은 괜찮을 것이다.

키가 큰 품종은 (*Molinia caerulea* 'Heidebraut') 80~100cm정도 자라고 작은 품종은 (*Molinia caerulea* 'Moorhexe') 30cm정도 자라는 데 그라스원을 조성할 때 역사류(무늬역새, 모닝라이트, 그린라이트 등) 앞쪽으로 심어 돌보이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다른 그라스류와 마찬가지로 물리니아도 어떤 환경에서도 잘 자라며, 관리에 크게 손이 가지 않는 것과 해가 지날수록 더욱 보기가 좋아진다. 군식용으로 많이 쓰는 역사 외에도 물리니아를 사용하여 현장을 더욱 다양하게 보일 수 있을 것이다.



물리니아 하이드

Q&A

Q: 허브를 정원에 많이 심었는데 잘 죽습니다. 왜 그런가요?
또 정원에 심어서 좋은 허브는 있나요?

A: 허브라 함은 원래 뿌리, 줄기, 꽃을 가지고 약이나 향료로 쓸 수 있는 식물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흔히 사람들에게 알려진 허브는 잎이나 줄기에서 강하게 자극하는 향이 많이 나는 식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식물들은 우리나라의 여름 장마기때 너무 많이 자라 스스로 녹아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경용으로 식재하는 식물들은 생육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월동이 가능한지 체크하여야 하고 (예를 들어 라벤다, 로즈마리는 중부권에서는 월동이 어려움) 너무 자랐을 때 적기에 전정을 해주어야 생육이 양호합니다.

우리나라의 허브라고 할 수 있는 섬백리향, 산마늘, 배초향, 박하, 총꽃 등이 생육이 강건하고 관리의 문제가 없어 좋고 속근사루비야, 모나다, 톨풀류, 꽃파, 에키나 등이 화려하고 아름다운 꽃을 가지고 있어 정원에 심기 좋은 허브입니다.

5. 향기식물 허브 이야기

차이브(CHIVES)



차이브는 부추과의 식물로 잔디와 비슷한 생김새의 줄기는 3월부터 10월까지 자랄 수 있는데 이것은 음식의 향을 좋게 하기 위해 쓰인다. 말리게 되면 가지가 사라지는데 겨울에는 한 두 개 화분을 실내에 두고 키우거나 아이스큐브(각빙) 방법으로 얼릴 수도 있다. 차이브는 3월에 파종하는데 화분에서 키운 표본을 봄이나 가을에 심으면 더 키우기 쉽다. 물은 정기적으로 주어야 하고 습한 땅과 햇빛이 잘 드는 곳이 적합하다. 주방에서 사용할 때는 토양층의 1인치 이내의 부분을 잘라서 사용한다. 봄에 피는 꽃도 매우 아름다워 정원 용식물로도 좋은 소재이다. 주기적으로 잎을 얻을려면 개

화한 꽃봉오리는 남겨두면 안된다.

차이브는 많은 용도가 있는 약초인데 잘게 썬 차이브는 감자 샐러드나 속을 채운 계란 요리, 스프, 샐러드, 오믈렛, 크림치즈와 소스에 쓰인다. 사람들이 키워야 하는 허브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벨가뭇(BERGAMOT)



벨가뭇은 내한성있는 다년생식물로 허브 정원보다 다년생 화단에서 볼 기회가 더 많다. 관모양 꽃의 꽃봉오리는 6월에서 9월까지 60~90cm가 되는 줄기의 꼭대기에 핀다. 하얀색, 분홍색, 빨간색이 있으며 화분에서 자란 식물을 사서 습하게 유지한 흙에서 50~60cm간격으로 심는다. 3년 간격으로 옮기고 포기 나누기를 하고 다시 심어야 하고 가을에는 지표면 바로 위 줄기까지 잘라야 한다.

이 식물은 모나다(Monarda)라는 라틴어에서 유래되었고 때때로 bee balm(멜리사, 향수박하)이라는 이름으로 실린다. 솜털이 보송한 박하와 비슷한 잎은 오렌지와 비슷한 향이 나고 샐러드와 디저트에서 사용된다. 동그란 꽃봉오리는 관상용으로 트라이플(케이크와 과일 위에 포도주·젤리를 붓고 그 위에 커스터드와 크림을 얹은 디저트)이나 젤리나 과일 샐러드 위에 장식된다. 마른 잎은 끓인 물에 넣어 약탕으로 사용 되기도 한다.



정원화로 좋은 우리 아생화



얼음 사이의 눈색이꽃 - 복수초

복수초(福壽草)는 행복과 장수를 비는 꽃이다.

양귀움을 뜻하는 복수(復讐)를 떠올리는 분들도 있지만 원래는 좋은 뜻의 이름이다. 꽃이 부와 행복을 상징하는 황금색으로 피기 때문에 일본에서 복수초라 부른 것을 우리도 그대로 쓴다. 수복초로 바꾸자는 주장도 있지만 그럴 필요까지는 없어 보인다. 일본에서는 새해에 행복과 장수를 기원하는 선물로 이용하므로 원일초(元日草)라고도 한다. 중국에서는 꽃이 핀 모습을 금으로 된 술잔에 비유해 측금잔화(側金盞花)라고 한다. 식물명을 간단명료하게 잘 짓는 북한에서는 일본과 비슷한 뜻으로 복풀이라고 한다. 작명 솜씨를 논하자면 우리가 제일이다. 우리는 복수초를 '얼음새꽃' 또는 '눈색이꽃'이라고 부른다. 얼음 사이에 핀다 하여 얼음새꽃이라 하는 것이고, 눈을 색이며(녹이며) 핀다 하여 눈색이꽃이라 하는 것이니 정말 아름다운 우리말 이름이다. 실제로 복수초는 송곳 같은 새순으로 얼음 사이를 뚫고 나오며 눈 속에서도 노란 꽃봉오리를 연다.

복수초는 희망을 선물하기도 한다. 병원에서 사진전을 하면 가장 인기 있는 작품이 바로 복수초 사진이다.

얼어붙은 흰 눈 속에 섰노랑게 고개 드는 복수초는 병약한 환자와 보

복수초(미나리아재비과) *Adonis amurensis*

개화: 3~4월

높이: 5~15cm

분포: 제주를 제외한 지역의 산지에서 자라는 여러해살이풀이다.

▶ 뿌리줄기는 짧고 굵으며 흑갈색의 잔뿌리가 많다.

▶ 줄기는 가시가 거의 갈라지지 않는다.

▶ 잎은 어긋나게 달리고 3~4회 깃꼴로 갈라지며 마지막 갈래조각은 피침형이다. 대개는 꽃과 동시에 나오거나 꽃보다 늦게 나온다.

▶ 꽃은 3~4월에 출기 끝에 1개씩의 노란색 꽃이 핀다. 지름은 2.8~3.5cm이고 별이 될 때에만 쟁반처럼 수평으로 펼쳐진다. 꽃받침잎은 대개 8~9개이고 꽃잎과 길이가 비슷하거나 조금 길며 흑갈색을 띤다. 꽃잎은 10~30개이고 암술과 수술은 많다.

▶ 열매는 꽃턱에 둥글게 모여 달리는 수과이고 표면에 짧은 털이 있다.

호자의 발걸음을 오랫동안 붙잡는다. 휠체어 탄 그들의 해쓷은 얼굴에 언젠가 병원 문을 나설 때의 희망이 변진다. 잠시나마 병약한 자신을 잊고 꽃처럼 환히 웃을 날을 기원한다. 꼭 환자가 아니라 건강한 사람이라도 복수초를 보면 단단한 생명력을 한 움큼씩 건네받는다.

야생에서 만나는 복수초는 더한 기운을 전달한다. 눈이 내려 쌓이긴 얼음이 얼어붙긴 상관없이 햇볕만 비쳐들다면 금잔 같은 꽃을 열어젖힌다. 그 어떤 시련도 상관없다는 듯이 잡티 하나 없는 노란색 꽃을 세상에 내놓는다. 이런 희망찬 꽃에서 좋지 않은 뜻의 복수를 떠올릴 사람이 얼마나 될까? 시련을 이겨내고 피는 꽃에서 아름다운 의미가 생겨난다. 아름다운 의미를 전하는 꽃에서 아름다운 웃음꽃이 피어난다. 복수초는 복수하지 않는다. 행복과 장수를 빌어주고 희망을 전해준다.



눈 속에 핀 개복수초



복수초군락



서해안 섬 지역의 개복수초



식재한 개복수초(한택식물원)



세복수초

유사종 알아보기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복수초 종류는 3종으로 압축된다. 복수초, 개복수초, 세복수초가 그것이다.

개복수초(*A. pseudocamurensis*)는 복수초에 비해 꽃이 두 배 가까이 크고 잎이 나면서 꽃이 함께 피는 점이 다르다. 복수초에 비해 꽃받침잎이 5~6개로 적고 꽃잎보다 길이가 짧은 점도 다르다. 주로 바닷가 쪽에서 자라는데, 특히 서해안 섬에서 피는 것들은 모두 개복수초다. 무리 지어 자라는 경우가 많아 큰 군락을 이루기도 한다. 해양성기후의 영향을 받는 바닷가 쪽이다 보니 복수초보다 이른 시기에 핀다. 그중 강원도 동해시 천곡동 냉천공원(찬물내기)의 개복수초는 1월부터 핀다. 어떤 해에는 12월부터 꽃망울을 터뜨리기도 해서 제정신인지를 의심받기도 한다. 꽃에는 죄가 없다. 죄가 있다면 포근한 날씨에 있다. 수목원 같은 곳에 심어진 것도 대개는 개복수초다. 꽃소식이 그리운 때에 일찍 피어주니 환영을 받는다.

세복수초(*A. multiflora*)는 개복수초와 비슷하지만 잎이 가늘고 날카롭게 갈라지는 점이 다르다. 경남 일부와 제주도에서 자라기 때문에 만나기 어렵지만 몇몇 식물원에 심어져 있다.



오리지널 복수초는 개복수초나 세복수초에 비해 꽃이 작고 잎이 늦게 나오는 점이 다르다. 개복수초에 비해 꽃받침잎이 8~9개로 많으며 꽃잎과 길이가 같거나 조금 긴 점도 다르다. 경기도와 강원도의 산지에서 자라는 것은 모두 다 복수초다.



복수초의 꽃받침잎



세복수초의 꽃받침잎

늦가을에 포기나누기를 하거나 씨뿌리기를 한다. 파종 후 2년차에 본잎이 나며 꽃이 피기까지는 3~5년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심기와 관리하기

햇빛이 잘 드는 곳을 좋아한다.

30% 정도의 부엽토가 섞이고 통기성과 물빠짐이 좋은 사질 양토에 심는다. 물은 꽃이 피는 시기와 겨울에는 적게 주고, 꽃이 피고 난 후부터는 보통 정도로 준다.

봄에 완숙 퇴비를 주고 가을에 덧거름을 한 번 더 준다.



글 사진 이동혁

헤이삼촌의 풀꽃나무 일기
http://blog.naver.com/freebowl
한국의 나무 바로알기, 한국의 야생화 바로알기 저자

수직정원, 벽면녹화, 인공구조물 녹화

최고의 기술은 "세 번의 겨울"을 나봐야 안다.

수직정원의 역사는 그리 오래 되지 않았다. 그러나 진정한 기술의 가치를 인정받은 수직정원의 대표적 선두주자는 단연 수직정원의 대명사인 벽화수이다. 수직정원 벽화수는 일반적인 벽면녹화용 제품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일반적인 제품은 주로 흙을 담은 그릇과 같은 용기를 이용하여 벽면에 부착하게 된다. 그것은 식물이 자라는 밥그릇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밥그릇이 크면 아 좋지만 벽면에 매달 수 있는 용기는 한정될 수밖에 없다. 때문에 이런 제품은 혹독한 겨울을 날 수가 없다. 물과 양분의 유실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진정한 수직정원의 기술력은 겨울을 세 번은 나봐야 인정할 수 있다.

그에 반해 수직정원 벽화수는 따로 그릇이 없다. 토양만이 있을 뿐이다. 원하는 벽면 전체가 썩지 않고 흘러내리지 않는 자연 상태의 토양과 같은 것이 식물의 뿌리를 한정하지 않고 또 수분의 고급도 한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심장인 서울의 하늘아래 실내가 아닌 건물 외부에 시공되어 3년을 넘긴 기술력은 오직 벽화수가 유일하다.

더욱이 벽화수는 3년이 아니라 이미 6번의 겨울을 넘기고서도 아주 아름다운 수직의 정원을 연출하고 있다는 데서 역시 그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역시 미국, 일본, 중국, 유럽에서 특허를 받은 제품의 기술력이 헛되지는 않는 것이다.



꽃모양이 나팔을 닮은 나팔꽃 상세 이해하기

전국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는 꽃

메꽃科的 한해살이 덩굴식물인 나팔꽃은 인도 및 중앙아시아 원산이지만, 오래 전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굳건히 터를 잡고 자라고 있기 때문에, 모두들 우리 토종 식물이라고 알고 있는 편이다. 나팔꽃은 대기오염 물질인 오존이나 이산화황에 민감하게 반응해 들깨, 사루비아와 함께 오염의 정도를 알아보는 지표식물로 쓰이기도 한다. 나팔꽃과 많이 닮아 있는 고구마와 유홍초, 둥근잎유홍초 무리들은 열대아메리카로부터 들어와서 원예 또는 식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식물들이다. 나팔꽃은 대개 관상용으로 심지만 길가나 빈터에 야생으로 자라기도 하여 전국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는 꽃이다.

나팔꽃의 특징

메꽃科的 한해살이풀로서 주변의 물체에 지지하여 자라는 덩굴식물이다. 줄기에는 아래쪽을 향한 털들이 백백이 나며, 길게 뻗어 다른 식물이나 물체를 왼쪽으로 3m정도 감아 올라간다. 잎은 어긋나고 긴 잎자루를 가지며, 둥근 심장 모양이고 잎몸의 끝이 보통 3개로 갈라진다. 갈라진 조각의 가장자리는 밋밋하고 톱니가 없으며, 표면에 털이 있다. 잎몸은 길이와 폭이 각각 7~14cm 정도이다.

나팔처럼 생긴 화려한 꽃과 열매

꽃은 7~9월에 청자색, 홍자색, 흰색, 붉은색 등 여러 가지 빛깔로 피고 잎겨드랑이에서 나온 꽃대에 1~3송이씩 달린다. 나팔 모양으로 생긴 통꽃이 아침 일찍 피었다가 낮에는 오므라들어 시든다. 꽃받침은 길게 5개로 갈라지고, 갈라진 조각은 가늘고 길며 끝이 뾰족하고 뒷면에 긴 털이 있다. 화관은 지름이 10~13cm이고 깔때기처럼 생겼다. 꽃봉오리는 붓끝 같은 모양으로 오른쪽으로 열리는 주름이 있다. 수술은 5개, 암술은 1개이다. 열매는 꽃받침 안에 있으며 3칸으로 나누어진 둥근 삭과이다. 3칸에 각각 2개의 세모진 종자가 들어 있다. 종자는 '견우자' 또는 '흑축'이라 부르기도 한다.



별나팔꽃



나팔꽃(청자색)



나팔꽃(홍자색)



나팔꽃(흰색)



나팔꽃 열매



나팔꽃 잎



둥근잎미국나팔꽃



둥근잎미국나팔꽃(혼합색)



둥근잎나팔꽃(홍자색)



둥근잎나팔꽃(흰색)

나팔꽃 무리의 상세 분류

나팔꽃 무리들은 여러 종류가 귀화되어 관상식물로 이용되고 있고, 더러는 농경지와 생활주변에 발생하여 잡초로 취급받으며 자라고도 있다. 나팔꽃(*Pharbitis nil* (L.) Choisy)은 보통 잎이 3갈래로 갈라지면서 꽃 색깔이 매우 다양하게 피는 편이고, 잎이 갈라지지 않고 둥근 심장 모양으로 생긴 둥근잎나팔꽃(*Ipomoea purpurea* (L.) Roth)도 있다. 잎에 유난히 털이 많으면서 갈라진 잎의 모양이 호리병을 닮은 모양이면서 가늘고 긴 꽃받침이 꽃잎쪽으로 붙지 않고 뒤로 자빠지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 미국나팔꽃(*Ipomoea hederacea* Jacq.)이 있는가 하면, 잎이 갈라지지 않고 둥근 모양이면서 미국나팔꽃의 특징을 그대로 지니고 있는 둥근잎미국나팔꽃(*Ipomoea hederacea* Jacq. var. *integriscula* A. Gray)도 있다. 식물체가 아주 작으면서 꽃이 흰색으로 앙증맞도록 피는 애기나팔꽃(*Ipomoea lacunosa* L.)도 있다. 꽃잎 끝이 별처럼 뾰족하게 생겨서 부르는 별나팔꽃(*Ipomoea triloba* L.)과 함께 북아메리카에서 들어온 귀화식물이다. 열대아메리카에서 들어와 식용으로 재배하고 있는 고구마(*Ipomoea batatas* (L.) Lam.)도 연한 보라색과 흰색으로 꽃이 피는 것을 볼 수 있다. 열대아메리카 원산인 유홍초(*Quamoclit pennata* Bojer)와 둥근잎유홍초(*Quamoclit angulata* Bojer)는 잎의 모양에 따라 쉽게 구별할 수 있다.

나팔꽃의 용도 및 사용법

관상용으로 전국 각지에서 재배하며 약재로도 많이 쓰인다. 한방에서는 말린 나팔꽃 종자를 견우자(牽牛子)라고 하는데, 푸르거나 붉은 나팔꽃의 종자를 흑축(黑丑), 흰 나팔꽃의 종자를 백축(白丑)이라고 한다. 주로 운동계 질환과 음식 체증을 다스리는 데 쓴다. 대소변을 통하게 하고, 부종·적취(積聚·오랜 체증으로 말미암아 뱃속에 덩어리가 생기는 병)·요통에 효과가 있다. 흑축의 효과가 백축보다 빠르다. 약으로 쓸 때는 탕으로 하거나 생즙을 내거나 산제 또는 환제로 하여 사용한다. 씨의 생즙을 쓸 때에는 물에 불려 짓찧어서 생즙을 낸다. 임산부는 장복을 금한다. 민간에서는 나팔꽃에 잎이 많이 붙어 있을 때 뿌리에서 20cm쯤 잘라서 말려 두었다가 동상에 걸렸을 때 이것을 달인 물로 환부를 찜질하기도 한다.



고구마 흰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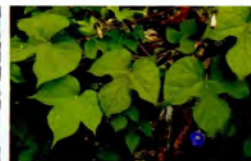
둥근잎나팔꽃(잎)



둥근잎나팔꽃(붉은색)



미국나팔꽃



미국나팔꽃 잎



애기나팔꽃



애기나팔꽃 열매



둥근잎유홍초



둥근잎유홍초 잎



유홍초



유홍초 근각



고구마 보라



고구마 잎



생활속의 도시농업



유치원 반별로 식물을 키우는 모습
2013년 6월 11일 수원영통 제1유치원 옥상정원

글 사진 정미나 건국대학교 이학박사
정월미화농회/ (사)도시농업모임 교육, 출판위원
한국의 정원 식물-초본류, 뒷밭정원활동북 101 저자

| 도시농업(urban agriculture, 都市農業)의 6하 원칙

도시농업의 사전적인 뜻은 도시민들이 판매 목적이 아닌 여가 활동이나 취미 또는 자신이 먹을 농작물을 직접 생산 할 목적으로 도시나 도시 근교에서 소규모의 땅을 활용해 농작물을 기르는 것이다. culture라는 것은 재배라는 뜻도 있지만 문화라는 뜻도 있다. 즉 도시에서 식물을 기르고 가꾸는 문화라고 정의내릴 수 있다.

도시농업은 누가(Who) 하는 가? 에 대답은 도시민이다.

도시농업은 언제(When) 하는 가? 에 대답은 항상 언제나이다.

도시농업은 어디서(Where) 하는 가? 에 대답은 안방, 거실, 식탁 위, 현관, 베란다, 벽, 옥상, 길가, 사무실, 복도, 교실, 지하 공간, 아파트 화단, 상가 앞, 텃밭, 공동체 텃밭, 주말농장 등 흠을 답을 수 있는 어느 곳에서나 도시농업을 할 수 있다.

도시농업을 하는 이유(Why)와 효과에는 도시 내에 식물을 키우면서 회색 도시를 녹색 환경 미화로 바꾸는 효과가 있으며 도시 내에서 자가 생산 된 농작물을 소비함으로써 안전한 농산물을 얻고 생명의 소중함과 땅의 소중함 농업에 대한 감사함을 느낄 수 있다. 또한 도시 내 녹지 보전으로 도시생태계 보호로 할 수 있어 공기의 질과 삶의 질도 높일 수 있다. 도시 내에서 식물을 가꾸는 원에 활동으로 여가 활용 및 심신 건강을 증진하는 효과도 있다. 식물을 가꾸면서 자신의 마음과 몸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어 편안함을 주워서

치유의 효과가 있다. 식물을 가꾸면서 가족들과 식물 성장하는 이야기도 하고 재배하는 과정에서 의견 교류하며 같이 함께 협동하는 것을 배우는 기회도 된다. 식물을 가꾸면서 인위적인 화학적인 비료보다 자연 친화적인 비료로 사용하며 물 소비도 줄이고 물의 소중함도 알게 되고 인스턴트식품을 덜 소비하는 소비 습관도 바뀌게 되어 자연친화적인 도시 생활을 하게 된다.

공동체 텃밭이나 주말농장에서 식물을 가꾸게 되면 지역을 주변을 이웃을 돌아보는 기회와 지역공동체가 회복되는 효과도 있다. 식물을 가꿀 때 식물의 이름을 붙일 설치하고 식물 성장하는 것을 관찰하고 기록하면 자연스럽게 농업체험, 교육 학습장이 된다. 농작물을 키우면서 자연스럽게 농업에 대한 농사에 대한 의식이 바뀌어 도농 교류 및 농촌 진흥화가 된다. 또한 제일 즐거운 것은 농산물을 수확하여 다양한 요리로 변하고 나누워 먹는 문화, 또한 나누워 수확하는 품앗이의 문화 효과도 있다. 단순히 식물 가꾸기가 아니다. 식물 가꾸기 문화이다.

도시농업에서는 어떤 식물(What)을 가꿀 수 있는 지에 대해 생각해 보면 어디에 심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먼저 실내나 실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또한 규모에 따라, 가꾸는 시간여건, 가꾸는 목적에 따라 달라진다. 식물도 주로 잘 사는 곳이 있다. 우선 식물의 원산지에 대해 알아야 한다. 실내식물을 실외에 가꾸는 실수를 범할 수 있다. 규모는 작은 화분에 심을 것인지 넓은 텃밭에 심을 것인지 또한 가꾸는 시간이 주일 밖에 없다면 성장이 늦은 식물 위주로 심고 식물 키우는 목적이 길장하기 위해서라면 배추, 무 등을 심고, 꽃자를 만들기 위해서라면 맨드라미 등을 심어야 하므로 재배되는 식물이 달라진다.

도시농업에서는 식물을 어떻게(How) 가꾸는 지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 무조건 식물을 가꾸고 싶다고 식물을 가꾸면 안 된다. 먼저 가꾸는 사람의 마음이 편해야 한다. 슬프거나 우울하거나 바쁘면 식물을 가꿀 수 없다. 식물도 살아있는 생명체이기에 식물을 돌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을 때 식물 가꾸기를 해야 한다. 식물을 가꾸는 것은 가꾸는 사람의 정성과 관심과 자연 기후 환경과 식물 자체의 자생력에 따라 달라진다. 또한 우리가 키우는 것이 아니라 식물 자체가 자라는 것이기에 시간이 흐름에 따라 때에 맞는 돌봄과 기다림이 필요하다.

본격적으로 도시에서 식물을 가꾸기 위해 준비물은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야 한다. 식물을 영어로 Plants이다. 식물이 자라기 위해

서는 장소가 필요하다. 장소(Place)에는 안방, 거실, 식탁 위, 현관, 베란다, 벽, 옥상, 길가, 사무실, 복도, 교실, 지하 공간, 아파트 화단, 상가 앞, 텃밭, 공동체 텃밭, 주말농장 등 흠을 답을 수 있는 어느 곳에서나 도시농업을 할 수 있다. 다음엔 식물이 자라기 위해서는 빛(light)이 필요하다. 일장에 따라 장일식물, 단일식물, 일조 요구량에 따른 음지 식물, 양지 식물로 구분해야 한다. 식물에는 공기 온도(air)가 중요하다. 월동 가능 온도에 따라 가꾸는 식물이 달라진다. 또한 식물에 필요한 영양분(nutrients)이 필요하다. 식물이 자라는 동안 영양분을 주어야 한다. 그리고 식물에게는 목마를 때(thirsty)에 필요한 물이 필요하다. 식물을 지탱하기 위해서는 토양(soil)이 필요하다. 영어 단어를 조합을 하면 Plants가 된다. 식물이 필요한 것은 단순히 장소, 햇빛, 공기, 영양분, 물, 토양으로 정리할 수 있다. 그렇지만 현장에서의 식물 가꾸기는 가꾸는 사람의 관심과 사랑 그리고 자연의 보살핌과 시간이 더욱 중요하다.

식물을 키우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식물이다. 식물의 종자를 뿌려서 기를 것인지 모종을 구매해서 키울 것인지에 따라서 종자 및 모종, 분화가 필요하고 가꾸기 위해서 필요한 자재들은 큰삽, 모종삽, 괭이, 갈퀴, 레이크, 호미, 낫, 꽃가위, 접도, 칼, 전정가위, 물뿌리개, 호스, 분무기, 양동이, 망, 앞치마, 작업용 장갑, 지주대, 차광막, 일륜차, 종자 봉투, 끈, 표찰, 모자, 장화, 네일 펜, 작업일기장 등이 필요하다.

누구나 언제든지 어디에서나 할 수 있는 도시농업



욕조에 베리글드를 심었던 모습
2014년 2월 16일 월계동 길가



무명 가뭇에 싹 틔 감자 심기
2014년 3월 2일 월계동 현관



2014년 4월 8일 인천 부개동 방안



2014년 3월 28일 용산구 효창공원 도로변



2014년 4월 2일 성동구 무지개텃밭



라넡쿨러스 피트 병 심지 화분
2014년 4월 16일 월계동 방안



아파트 실내에서 관엽 식물 및 다육식물 가꾸는
2014년 4월 8일 인천 부개동 베란다



2014년 4월 14일 서울 휘경동 주택가



상지텃밭에 야생화를 심은 모습
2014년 4월 29일 강동역 주변 및 천호3동 주민센터



2014년 4월 16일 월계 2동 상가



2014년 6월 5일 독성유원지 산업인력공단 근처



2014년 4월 24일 경복궁역 골목



스티로폼에 벼를 심은 모습
2014년 7월 4일 불광역 근처



2014년 9월 7일 강동구 천왕강공동제텃밭



경향사에 매일지라는 모습
2014년 9월 7일 광운대역



2015년 5월 21일 북한산 텃밭



2015년 7월 7일 국회생생텃밭



2015년 8월 11일 대구경진초등학교 텃밭



벽에 재창용 컵을 이용하여 아이비를 심은 모습
2014년 10월 30일 강남청년창업센터 사무실 벽



동근잎 유홍초, 허브류, 채소 등 다양한 식물모습
2015년 8월 23일 월계동 옥상



국회의사당 잔디를 걷어내고 텃밭을 조성한 모습
2015년 4월 2일 국회 생생텃밭



상지텃밭에 배추와 국화를 심은 모습
2015년 9월 18일 용산구 어린이집 옥상 상지텃밭

윤정식 교수의 허브 & 아로마테라피

필리핀 일랑일랑 국가프로젝트 (지원 사업) ①

필리핀 APEC 적정기술 보급 및 연구개발 역량강화사업
(2014~2016/45만불)

글 사진 윤정식 - 생활의 향기 대표, 원광디지털대학교 외래교수

허브향기처럼 향기 가득한 2016년 한해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제가 필리핀 일랑일랑 국가프로젝트 전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2014
년도부터 진행된 내용들을 가든인에 최초로 공개하고자 합니다.

일랑일랑은 필리핀이 원산지인 아나오시(Anao City)는 필리
핀 일랑일랑의 수도로 일랑일랑을 대량으로 재배하고 있습니
다. 2014년 국가 정상간(APEC) 합의에 의해 특허청, 외교부,
KOICA(한국국제협력단), 한국발명진흥회(KIPA)가 함께하는
프로젝트로 저는 이로마테라피 교육과 일랑일랑 2차상품 개발
전문위원으로 위촉이 되어 2014년부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필리핀 농림부와 Philmec, 그리고 Anao 시를
살리는 아주 중요한 프로젝트입니다.

2014년 11월 26일, 제가 처음으로 Anao시에서 일랑일랑을
만나던 날이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책에서만 보아왔던 일랑일
랑 나무와 꽃을 직접 본다는 것은 첫사랑처럼 설레고, 그리
운 사람을 만나는 것처럼 반가웠습니다. 지금도 일랑일랑과의
첫 대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Anao시는 Tarlac City에서 40여분정도 떨어진 곳으로
12,000여명의 인구가 있으며, 18개의 바랑가이(Barangay)가
있는 아주 평화롭고 아름다운 마을입니다. 1980년대부터 일랑
일랑 오일을 추출해내고 있는 데 오일 추출기 노후와 상품개발
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오일 추출기 개발과 허브&아로
마테라피 교육, 그리고 2차 상품개발을 저희 한국 프로젝트팀
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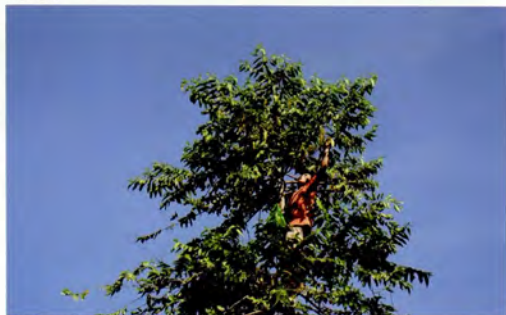
올해로 145년째 Anao시에서는 매년 3월 14~16일
Festival(축제)이 열리는데, Ylang-ylang축제도 함께 진행이
되어오고 있습니다.

전세계에서 수십년간 일랑일랑 축제가 열리는 곳은 이곳 Anao
시가 유일합니다. 2015년 3월 14~16일 일랑일랑 축제 현장
속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3월 14일은 Farmer's Day라고 해서 시민들을 위한 날이고, 3
월 15일은 Ylang-ylang Street Dancing Competition(스트



일랑일랑꽃



나무 꼭대기에서 일랑일랑 꽃을 따는 모습



일랑일랑 꽃향기를 맡으며



일랑일랑 꽃을 따고 사진 한 컷

리트 댄싱 축제), 그리고 3월 16일에는 Thanksgiving Mass와
Grand Parade, Variety Show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축제 준
비를 Anao시민들이 한달동안 하는데, 정말 판타스틱한 일랑일
랑 축제를 즐긴 멋진 날들이었습니다!

일랑일랑(Ylang-ylang)은 필리핀이 원산지인, 필리핀, 마다가스
카르, 코모로 섬 등에서 재배되고 꽃에서 일랑일랑오일을 추출
하여 향수 원료, 아로마테라피 원료로 전 세계에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일랑일랑 허브와 오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랑일랑이라는 말의 유래는 '꽃 중의 꽃'이라는 말로 말레이



일랑일랑 모종-10일정도

Ylang-ylang(일랑일랑)

Botanical name(학명): *Cananga odorata*

Family(과명): *Ammonaceae*(빈야지과)

Method of extraction(추출방법): Steam Distillation(수증기증류법)

Place of origin(원산지): Philippines, Madagascar, Comoro Islands

History(역사): 인도네시아에서는 신혼 첫날밤에 침대에 일랑
일랑 꽃을 뿌려놓고 첫날밤을 보내는 풍습이
있다.

Properties(특징)

- 1) 우울, 불안에 효과(Antidepressant)
- 2) 최음효과(Aphrodisiac)
- 3) 심계항진, 가슴두근거림(Palpitation)
- 4) 피부-지성, 건성 피부, 모발에 효과(피지 분비 조절)

시아어에서 유래하였으며, 이국적이고 달콤한 꽃향을 가진 일
랑일랑 오일은 호르몬 분비를 균형적으로 조절해서 생식기 관
련 질환에 효과적이며 자궁의 강장제, 유방의 탄력 유지, 최음
제 등으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진정작용으로 가슴 두근거림이
나 과호흡, 고혈압 치료에 도움을 주며 불안, 분노, 긴장, 쇼크,
우울증, 두려움, 좌절 등의 신경계 증상에 효과적으로 진정 시
켜줍니다. 또한 피지의 분비를 조절하기 때문에 지성이나 건성
피부관리에 효과적인 일랑일랑은 자극, 강장효과로 모발과 두
피관리에도 사용됩니다. 주의 사항으로는 고농도로 사용하면
두통이나 구토를 유발할 수 있으며, 장기간 사용하면 신경기능
을 자극시켜 흥분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일랑일랑 씨앗



일랑일랑모종 6개월



정원과 아이들 (Garden & Kids)



앞으로 정원은 어른들을 위한 공간을 넘어서 아이들과 함께 가꾸고 즐기며 새로운 아이들의 놀이터로 자리매김해 나갈 것이다. 특히 각박한 도심사회속에서 아이들에게 자연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집안의 베란다정원에서 공동의 텃밭정원에 이르기까지 주어진 여건은 제각기 다르지만 이들을 잘 활용한다면 자라나는 아이들의 정서에 좋은 영향을 가져다 주리라 확신한다. 2016년도 새로운 기획으로 '가든인'에서는 정원와 아이들(Garden & Kids)이란 주제로 아이들이 정원와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이야기거리를 전달해 드리고자 한다.

글 사진 편집실



정원에서 놀자

1. 야외는 최상의 학습장

녹색 공간들은 아이들에게 스트레스를 풀고 공놀이 등 육체적인 야외 놀이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즉 근심 걱정 없는 자유로운 시간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야외에서 만들어진 놀이들은 실내에서 하는 놀이와는 종종 다르다. 왜냐하면 변화하는 주변환경들이 어린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기 때문이다. 계절, 날씨, 그리고 빛과 어둠은 매일매일 식물을 비롯한 여러 창조물에 영향을 끼친다. 이러한 야외 풍경의 변화는 아이들에게 매력적이고 가치 있는 학습 경험이 될 수 있다.



1. 식물을 심고 기르는 일은 즐겁고 식물에 대한 배움은 흥미로울 수 있다.
2. 정원에서 자라는 꽃들을 보는 것은 아이들의 정서에 정말 도움이 된다.
3. 녹색공간들은 아이들에게 가치있는 학습공간이 되어준다.
4. 정원을 통해서 창의력과 호기심을 극대화 해줄 수 있다.

2. 아이들에게 왜 정원이 필요한가?

도시 지역의 거대한 성장과 교통이 발달하기전의 우리 어른세대들은 그들 주변의 자연환경과 더불어 생활해왔고 익숙했다. 하지만 고속성장을 해온 우리나라의 이면을 살펴보면 개발이라는 명목아래 우리주위의 자연환경이 없어지게 되어 슬프게도 오늘날에는 아이들이 자연으로부터 자연스럽게 차단되어져 왔다. 기술의 발전은 자연과의 연결로 발전되지 못하였고 많은 아이들은 그들이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이나 컴퓨터 게임에 빠져 야외로 나가는 것을 갈수록 꺼려한다.

하늘을 보고 직접적으로 햇빛을 경험하고 신선한 공기로 숨 쉬고 꽃의 향기나 비 온 뒤의 땅의 눅눅함의 냄새를 맡을 수 있는 정원 그리고 자연 세계를 인식하게 되는 것.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원시적인 수준으로 자연과 다시 연결되게 도와준다. 몸과 마음이 가는 방법으로 정원와 녹색 공간에서 놀고 그 곳을 경험하는 아이들은 더 자연을 기억하고 성인이 되어서도 자연과 조화될 수 있다는 것을 연구결과가 보여준다. 놀랍지 않게도 이러한 경험은 우리가 일상생활의 스트레

스를 더 잘 대처할 수 있게 도와준다. 그리고 원예와 야외 활동의 긍정적인 경험을 한 아이들과 자연을 관찰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 받은 아이들은 세월이 지난 후에 어른이 되어서도 자연스럽게 정원을 만들고 즐기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된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정원을 통해서 흥미로운 것들을 어떻게 발견하는지 보여줌으로써 아이들의 창의력과 호기심을 극대화 해줄 수 있으리라 본다.

3. 아이들과 함께 정원 만들기

크고 작은 자연 그대로 혹은 깔끔하게 손질된 많은 종류의 정원이 있다. 어떤 종류의 정원을 갖고 있던지 간에 걱정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식물이 자랄 수 있는 곳이라면 어떤 곳이든지 아이들에게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베란다, 거실, 공동텃밭, 혹은 안마당의 화분에 가득 차있는 작은 꽃이나 채소는 모두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그들의 작은 땅이나 화분을 주어 스스로 가꿀 수 있도록 해준다면 아이들은 특별한 관심처럼 느낄 것이고 책임감을 가르치는데 도움이 된다. 이후에도 어린 아이들에게는 아이들의 노력의 결과가 사라지지 않도록 추가로 물을 주고 병해충 방제를 하는 것과 같은 뒷받침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5. 실내용 화초, 야생화, 허브 그리고 전디안형 등을 직접 기르고 관리하는 것은 재미있다.
6. 아이들은 무심코 발견한 식물, 곤충, 동물들을 보면서 상상력을 키운다.
7.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꽃, 열매 등을 보면서 흥미를 갖게 해준다.

GardenIn TIP

아이들을 위한 맞춤정원

정원을 아이들에게 더 잘 맞고 활기를 줄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는 기본적인 방법들이 있다. 아래에 적힌 것을 따라서 해보자.

- ✓ 공놀이로부터 연약한 식물들을 보호하기 위해 격자 구조물, 관목과 같은 튼튼한 식물들을 이용해서 정원의 경계를 해준다.
- ✓ 크고 밝고 화려한 꽃을 키워라. 색채 조합에 관해서는 걱정하지 말고 아이들이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 ✓ 과일과 채소를 재배해라 - 채소밭이 있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단지 베란다에 조금의 재배용기만 있으면 충분할 것이다. 토마토, 블루베리, 딸기와 같이 식물에서 바로 따서 먹을 수 있는 식물들을 포함해라.



- ✓ 곤충과 나비, 새들이 비교적 좋아하는 꽃과 채소들을 심어라.
- ✓ 어린 아이들이 부모들 앞에서 정원을 가꾸고 식물과 화분, 퇴비 더미를 위한 재료 등을 운반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유아용 도구와 작은 손수레를 구매해라.



세계의 식물원



스위스 고산식물원

쉬니게플라테(schynige platte)

글 사진 저 준 혁

스위스하면 쉽게 연상되는 단어는 관광국가, 알프스, 요들송, 산악국가, 중립국가 등등이다. 이중에서도 스위스는 관광국가로서 명성이 높은 나라이다. 여러 관광도시가 있었지만 알프스 융프라우지역은 관광명소로 제일 유명한 곳이다. 가장 관심을 끄는 빙하지대로 2001년에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되었다. 단순히 자연이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과학적인 보호 가치가 높아서 자연유산으로 지정된 곳이다. 즉 빙하 지대 고유의 여러 가지 지형을 포함하고 있으며 알프스 특유의 다양한 생태를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스위스 베른주와 발레주에 걸쳐 있으며 유럽의 지붕이라는 융프라우를 비롯한 아이거, 멘히, 비츠, 알레치 등의 여러 산봉우리와 서유럽에서 가장 큰 알레치 빙하 등이 포함되어 있다.

알레치 숲을 통과하는 하이킹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이 지역의 다양한 생태계를 관찰할 수 있다. 그 험한 산악지형에 16년간의 장기공사를 통해서 철도를 완성하고 융프라우 정상까지 편안히 올라갈 수 있게 한 것에 새삼 놀랐고 또 한번 놀란 것은 대부분 관광객들이 우리나라 사람을 비롯하여 일본, 중국에서 온 아시아인이라는 것...

이곳은 또한 알프스산맥 특유의 생태계와 종 다양성을 보여주는 곳



으로 의미가 깊다. 인간의 직접적인 간섭 없이 다양한 생태계의 진화가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생태 천이의 좋은 예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오래 전부터 자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알레치 숲에는 아고산대, 고산대 등 수목한계선을 따라서 광범위한 동식물의 생태를 볼 수 있다. 기후 변화로 인한 빙하의 변화가 이곳의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입구에 다양한 고산식물들이 전시되어 있다.

초미의 관심사다. 융프라우로 가는 여러 관광코스 중에서 이러한 다양한 식물들을 볼 수 있는 고산식물원이 있는데 바로 이곳이 쉬니게 플라테(schynige platte)이다. 해발 2,076미터에 위치하여 산악지대의 목본식생대 이상에서 발견되는 고산식물종들을 관찰할 수 있다. 패랭이류, 할미꽃류, 용담류 등 쉽게 접할 수 없는 다양한 고산식물들을 감상할 수 있다. 세계에서 몇 안되는 자연서식지라 할 수 있다.

산악철로를 통해서 식물원에 도착하면 입구에서 500여개 라벨화된 식물종에 쉽게 접근하여 볼 수 있고 고산식생의 생태에 관한 것, 생태에 의한 교란 등에 관한 전시도 볼 수 있다. 둘러보는 길은 약 500미터 정도 되는데 시원하게 펼쳐 놓은듯한 바탕에 여기저기 피어있는 고산식물들이 매우 아름다운 경관을 연출한다. 쉬니게 플라테는 1928년에 문을 열어 해마다 5월에 개장하여 9월까지만 운영한다. 겨울이 일찍 찾아와

눈이 많이 내리기 때문이다.

이 지역은 날씨에 따라 7-8월에도 눈을 볼 수 있다. 이 고산식물원의 중요한 의미는 융프라우지역의 특별한 관광명소이고 자연보호가 이루어지는 지역으로 과학적 연구의 산실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고산 식생에 대한 관심과 특별한 즐거움을 찾을 수 있도록 해준다.



고산종 알레치(좌)와 양지꽃류(우), 고산기후에 적응하기 위해 대체로 잎이 두껍다.



식물원 곳곳에 다양한 고산식물이 군식되어 펼쳐져 있다.



정원을 꿈꾸는 사람들

플로라하우스

윤선자(60)

글 사진 우성아



경기도 용인의 플로라하우스 정원은 본재를 즐기는 남편과 꽃을 좋아 하는 부인이 힘을 합쳐서 만들어낸 곳이다. 2002년부터 조성을 시작해서 2003년 완공한 이곳은 13년 된 정원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을 정도로 심플한 디자인으로 조성되어 있다.

1000여평(3,300m²)의 정원에는 중산국수나무, 설구화 소나무, 반송, 노박당굴, 복자기, 당강나무, 생강나무, 주목 눈썹목, 산수국, 목수국, 느릅나무, 조팝나무, 적화마로니에, 미국 낙상홍 등의 목본류와 유판나물, 배초향, 아스타, 꽃범의꼬리, 물싸리, 붓꽃, 구절초, 으아리, 동의나물, 마삭줄, 복수초, 영초 등 초본류로 조성되어 있다. 대문에서 들어오는 주 출입구 앞에는 전정이 조성되어 있는데 대부분 소나무와 철쭉으로 조성되어 있고 여백을 두어 한국적인 이미지를 강조했다. 전정을 지나 집 옆으로 조성되어 있는 후정은 중앙으로 시원스러운 잔디 정원을 중심으로 그 둘레에 구역마다 테마를 만들어 소품을 배치하여 소소한 재미를 더 했는데 서양정원의 배식을 이용한 식재가 잘 어우러져 있다.



처음 터를 잡을 때 산 밑 음지가 많은 땅을 벌이 드는 곳으로 어떻게 만들까 하는 고심 끝에 전체적으로 대지를 높이고, 그늘을 만드는 나무를 옮기거나 베어내면서 해결할 수 있었다고 한다. 땅을 높이기 위해 2700대의 흙과 800대의 마사를 부어서 밑 작업을 하고, 입체감이 있는 정원을 만들고 싶어서 구상도를 미리 그려 큰 마운딩과 작은 마운딩을 하고, 가장자리로 굴곡을 주어 정원의 기초를 다졌다고 한다. 흙을 메우기 전에 좋은 돌들을 골라서 정원석으로 쓰고, 원래 있던 나무 중에 수형이 아

름다운 나무를 골라 다시 정원에 식재하여 초기 비용을 줄일 수 있었다고 한다.

목본류 보다는 초본류의 식재가 몇 번의 시행착오를 겪고서야 식생을 이해할 수 있었다고 한다. 단지 보이는 모습만 보고 식재를 했다가 우세한 종자들의 번식에 아까운 식물이 고사해 나가게 되고, 또 시간이 흐른 다음 예상과는 다른 식생을 보이는 식물의 의외성 때문에 도리어 공부를 해야만 했다고 한다. 실제로 처해진 환경에 따라 식물은 변하기 때문에 잘 길들이는 것도 한 방법이라 했다. 알뿌리들은 대부분 식생이 좋은데, 특히 상사화나 석산은 2-3년에 한 번은 알뿌리들을 캐내어 일정 간격을 유지시켜 주어야 하며 튤립은 심고 2-3년 정도 되면 꽃이 작아지고 퇴화되어 없어져 소량만이 잔존하며, 아스타는 봄에 초장을 10-15cm정도 남기고 한번 정도 잘라주면 웃자람이 방지되고, 줄기가 튼튼해 식생이 좋아진다고 한다.



정원관리는 잡초제거를 하거나, 우치란 것들을 잘라주고, 씨를 받고, 삽목을 한다 했다. 하지만 인공적으로 삽목하거나 파종한 것 보다 즐겨 찾는 산까치가 먹다 배설한 씨앗들이 발아를 하거나, 자연적으로 씨앗이 떨어져 싹을 틔운 것들이 인공적인 것보다 대체로 강하기 때문에 자연에 순응하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한다. 노지 월동이 힘든 식물은 유리로 만든 온실에서 겨울을 나는데, 특히 수국은 서리에 꽃눈이 얼기 때문에 꽃을 보기 위해 온실에서도 냉해를 입지 않게 신경 쓴다고 한다.

비료는 가을에 일반 퇴비를 살아 놓고 천막으로 덮어서 1년 이상 묵혀서 완전히 발효되어 냄새가 나지 않는 것을 나무의 수관목을 따라 뿌려 주고, 고체비료를 이용해 화분이나 플랜트 박스에 식재된 것에 영양을 공급한다.



잔디는 생육이 왕성한 시기에는 10월에 한번씩 깎아 주고, 때때로(모래, 가는 마사)를 뿌려 주어서 부리가 들어나는 것을 막아준다고 한다. 잔디의 식생이 우세해서 잔디 정원 가장자리로 경계를 기와로 쌓거나 방부목을 땅속 30cm이상 박아서 경계를 넘지 못하게 하고 있다.

방제는 친환경 방제제를 이용하는 편이며, 1년에 1번 정도 방제하고, 병이 생기면 추가로 방제한다. 단 소나무는 1년에 1번 3월에 분사기를 이용해 높은 곳까지 골고루 달도록 저독성 농약을 이용해 방제한다.



"정원으로의 첫 발은 남편의 사업장 옆 자투리 땅에 꽃을 사다 하나 둘 심다 보니, 작은 정원이 조성이 되고, 지나는 이들의 대화의 주제가 되며, 주위의 공장들이 모여있는 공단 지역 점심시간에 휴식하러 나온 이들의 사랑방이 되어 까쭈(까페라고 하기에는 쭈스럼지만)이라는 별칭도 생겼어요. 그 때 생각했죠. 나도 행복하고 주변에 이들과 행복하게 하는 것이 꽃이라는 걸... 행복뿐만 아니라 오래도록 고생하던 비염도 이곳으로 오면서 사라졌어요.

식물이 땅속에서 보이지 않는 노력으로 받은 은혜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 행복함으로 4계절 색이 있는 정원, 늘 생명력 있게 움직이는 정원을 만들고 싶어요."



조경가든대학 이천그린아카데미 7기 종강 후기

[그린아카데미기 종강 현장 취재]

글 사진 박미영



들판에 꽃들이 만개한 8월의 어느날을 개강으로 어느덧 11월의 마지막 주.

아카데미 학우들과 두 계절을 함께 보내고도 겨울이 성큼 다가온 만큼 서늘한 계절의 온도를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3개월의 짧고도 긴 교육을 마지막으로 우리꽃교육장에서 제7기 그린아카데미 종강식이 열렸다.

『경기농림진흥재단』에서 주최하는 『조경가든대학』은 귀농귀촌을 시작하는 분이나 조경, 원예, 농업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쌓고자 하는 분, 정원문화에 관심은 있지만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한 경기도민에 한해 경기농림진흥재단에서 교육비를 지원해주는 녹색 교육 프로그램이다.

해가 지날수록 교육내용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정원의 이해에서부터 식물의 선정, 정원설계, 식물의 유지관리까지 실내,외 정원 조성에 대한 이론강의와 실습을 병행하여 전문가로서 소양을 충분히 갖추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번 7기는 매 학기마다 이루어지는 만족도 설문지를 통해 더욱 체계적이고 탄탄해진 강의 내용과 실질적인 실습을 바탕으로 수강생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었다.

• 3개월간 뜨거웠던 7기생들의 학구열이 빛나는 조경가든대학 현장의 모습들을 기록해본다.



1강 식물환경_박공영 교수
식물환경 및 개강식을 마치고 우리꽃농장소개



2강 채소정원 조성 실습시간_조남걸 교수
실습시간에 채소를 심는 모습



3강 정원의 이해_서수현 교수
일족 마음의 정원 답사



4강 정원계획과 설계_서수현 교수
한상옥사무국장님 정원 방문 및 정원설계 디자인 시간



5강 야생화종류_박공영 교수



6강 식재관수_김광두 교수
촉백나무 이식을 위해 수목을 굴취하는 모습



7강 정원답사_김영채 교수
2015 경기정원문화박람회(안성맞춤랜드)



8강 병충해관리_이종범 교수



9강 수목종류_김광두 교수



10강 실외정원_박광영 교수
식재깊이를 생각하며 함께 틀림구경을 심는 모습.



10강 실외정원_박광영 교수
정원답사 여행 중. 이화원



11강 수목전정_김광두 교수
다양한 수목에 따른 전정 방법 실습



12강 실내정원조성_왕금옥 교수
글라스화분에 여러 가지 실내 식물을 심어보는 시간



13강 비배관리_김광두 교수



14강 식물번식_박광영 교수



수료식 및 종강식

<interview>



정원 디자인과 설계를 의뢰하신 한상옥, 전순옥 수강생 정원을 방문하여 전 수강생 모두가 내 정원처럼 열면 토론을 하고 있다.

“유학생활을 마치고 전원생활을 즐기 위해 내려온 고향에서 조경가든대학을 알게 된 건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남들처럼 멋지게 정원을 꾸미고 싶는데 내 정원에 어떤 식물이 어울리는지, 디자인 계획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 줄 모르는거예요.
졸업을 할 때 즈음 제가 배운 점은 “아는 만큼 보인다”와 “즐거움으로 해야한다”예요. 소중한 시간 함께 할 수 있어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그린아카데미 7기 사무국장 한상옥 졸업식 논문발표 중



“누군가 저에게 어떤꽃이 가장 아름답느냐고 물어본다면 우리꽃이요, 라고 말합니다. 내 손으로 가꾼 내 정원에 있는 우리꽃이요. 아침에 일어나서 정원을 둘러보고 가꾸는 일이 너무 행복합니다. 풀 한 포기 자라는 생명력에도 늘 감사해요”

그린아카데미 7기 회장 신주식 인터뷰 중

조경가든대학은 상반기와 하반기 총 2회에 걸쳐 진행되며 14주 과정(총 56시간)으로 매주 수요일 4시간의 교육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이 교육과정을 수료한 수강생은 시민정원사로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으며 경기도 지사가 인정하는 신입정원사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게 된다.

조경가든대학 개요

운영기관: 경기농림진흥재단

교육내용: 실내외 정원조성에 관한 이론 및 실습교육 교육과정

기간: 2016년 상반기 3월경(추후공지)

장소: 우리꽃 교육장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진상미로 924번길 87(송곡리 696)

시간: 오전 10시 30분 ~ 오후 15시 30분

인원: 30명

수강료: 25만원 (65만원 중 경기도민에 한해 경기농림진흥재단에서 40만원 지원)

교육생 특전

우리꽃 행사 및 무료특강에 우선기회 제공 및 수료증 제공

교육신청

접수기한: ~ 상반기 공지 후 정원마감

신청자격: 도시농업, 정원문화와 원예에 관심이 있는 모든 분

신청방법: 전화문의

T. 031-634-7990 / F. 031-634-7991

교육후기: <http://gardenjoa777.blog.me>



겨울로의 산책

겨울을 맞이하는 아파트정원

전국 곳곳에 아파트는 실재없이 건설되고 있다. 대기업무터 중소건설사에 이르기까지 많은 아파트가 세워지고 있다. 아파트가 건설되면서 빠질 수 없는 것이 조경이다. 그 중에서 초화류의 적용은 중요한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2~3년전부터 아파트 초화류 식재도 변화의 바람이 불어왔다. 그 내용을 안내해 드리고자 한다.

글 사진 편집실

I. 특화공간의 탄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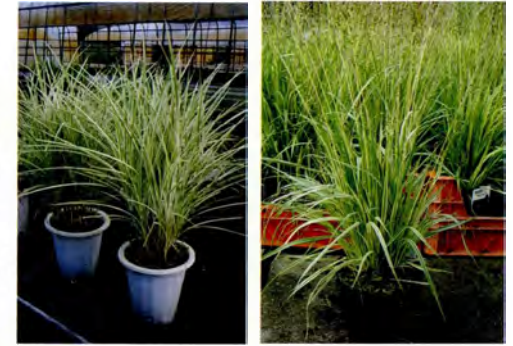


예전에는 교목과 관목 그리고 지피류로는 백문동 정도가 전부였다. 그러다가 2000년대를 전후로 해서 야생화가 본격적으로 아파트조경에 많이 이용되기 시작했다. 단지내 여기저기 식재되었지만 수종이 단조롭고 현장여건에도 맞지 않는 품목이 설계되어 지는 것이 다반사였다. 그래서 실제로 현장시공시 품목을 바꾸어 시공하고 설계변경하는 것이 일반화되었다. 그리고 지금에 이르러서는 단지 현장에 맞게 식재하는 것을 넘어 입주자 점검 시기에 맞추어 최고의 경관을 요구하는데 이르렀다. 그러다보니 아파트의 중심이 되는 곳에 특화공간이 설정되어 아름다운 경관연출을 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아파트에도 정원개념이 도입된 것이다.

다. 하지만 아직 사후관리 개념이 정착되지 않은 시점에서 관리가 용이한 식물 또는 식재기법으로 하는 것이 아파트정원에 맞지 않을까 생각된다. 그래서인지 암석가든 또는 세미암석가든이 특화공간에 많이 이용되어지고 있다. 그리고 위에서 언급했듯이 입주자 점검 시기에 포인트를 맞추어서 연출하기 때문에 시기별로 식물의 적용이 달라질 수 있다.

II. 규격의 변화, 초화류와 관목의 조화

시공 후 바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식물의 규격도 바뀌어질 수밖에 없다. 예전에 작은 규격의 포트로는 이를 표현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큰 규격포트 또는 식생매트를 이용하여 식재후 바로 효과를 볼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 물론 수호초, 애란 등 작은 포트를 사용해도 무방한 것은 괜찮지만 예키나, 후룩스, 그라스류 등 어느정도 포기가 커있거나 꽃이 풍성한 것을 원한다면 큰 규격에 재배되어진 품목들을 이용해야 한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특수관목들을 적절하게 이용하여야 한다. 삼색조팝, 황금조팝, 무늬병꽃, 홍매자나무, 말채나무 등 잎과 줄기의 색감이 좋은 관목과 붓들레야, 미니배롱나무, 말팔도리 등 꽃이 좋은 관목을 잘 혼합하여 식재하면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 또한 질감이 좋은 상록성의 관목들도 유용하다. 특히 늦가을 또는 초겨울 준공을 앞둔 정원은 이러한 상록성의 관목이 더욱 필요한 것이다. 이번 에 소개할 아파트정원은 늦가을에 준공을 앞둔, 그래서 그 시기에 맞게 시공한 현장을 안내하고자 한다.



III. 가을에서 겨울로 가는 정원

사진에서 보는 아파트정원은 시기적으로 10월에서 11월에 시공된 정원이다. 이 시기는 꽃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제일 취약한 시기이다. 아스타, 분홍구절초, 하늘용담 등을 제외하면 꽃이 없는 시기이다. 그렇다면 전체적인 효과를 내주기 위해서는 잎의 느낌이 좋은 식물로 연출해 주어야 한다.



그것도 초화류와 관목을 조화롭게 해주는 것이 좋다. 먼저 포인트로 약 1~1.5m 사이의 에메랄드그린, 에메랄드골드, 황금실화백 등을 식재해준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돌을 배치해주는데 면적이 큰 곳은 큰 돌과 작은 돌을 적절하게 사용해주고 작은 공간은 작은 돌을 이용해주는 것이 좋다. 초화류로는 잎의 색감이 좋은 적엽휴케라, 무늬수호초, 세덤류, 꽃잔디(실제로 큰포기를 심으면 꽃이 없더라도 느낌이 좋음), 무늬실유카(브라이트 에저, 골든하트), 펜스테몬 상록종엽이 좋고 꽃 종류로는 늦게까지 꽃을 피우는 가우라베이비, 하늘용담, 아스타 등을 적절하게 사용하면 좋다. 또한 가을정원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그라스이다.

억새류, 털수염풀, 왜성수크령, 쏘새풀 등은 전체적인 품과 느낌이 좋아 적절하게 배치하면 최고의 효과를 볼 수 있다. 관목으로는 상록이면서 잎의 질감이 좋은 향나무류, 측백류를 선별해서 사용하면 좋은데 국내에서도 이제는 다양한 품종이 보급되어 지고 있다. 유망한 종류로는 골드스타향, 블루카펫향, 골드키센향, 블루애로우향, 골드카펫향 등이 있다. 그리고 낙엽성으로 가을단풍이 좋은 삼색조팝, 이테아와 잎의 색감이 좋은 황금매자, 홍매자 등이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다. 멸종위기종도 중요한데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갈색의 화산석도 있고 단가가 비싸지만 고급스런 느낌을 주는 하얀색의 밝은 화산석도 있다.

늦가을에 위에서 언급한 소재로 조화롭게 조성한다면 늦가을부터 겨울에 이르기까지 살아숨쉬는 정원을 연출할 수 있다. 그리고 여건이 된다면 추식구근인 튤립, 수선, 무스카리를 가을에 식재하면 이른 봄에 다시한번 아름다운 정원을 선보일 것이다.



적용주요 품종



억새 파랑새



황금매자



골드스타향



골드키센향



매자나무 로즈글로우



왕아주개



털수염풀



실유카골든하트



골드카펫향



블루카펫향



무늬수호초



쏘새풀

가든조아

Seed the Dream, Unroll it.

www.gardenjoa.com

정원도구 특가세일

'베란다 텃밭, 옥상텃밭, 정원관리에 활용하는 도구 총집합!'

20%
~최대 30%할인



손도구 앞치마 7종세트

22,500

18,000원

정원도구세트의 최강자! 앞치마에 요긴한 정원도구들을 담아 편리하게 사용하세요.

구성: '스테인레스 스틸 블레이드 하드우드 손잡이', 모종삽, 갈퀴2종, 파종기, 장갑(PVC코팅 그립), 앞치마 포함

손도구 가방 7종세트

18,000

12,000원

파종하기 모종 옮겨심기 결순따기 가지고르기 등 텃밭관리에 필요한 도구를 가방 안에 모두 담았습니다. 정원 손도구 가방 세트에 편리하게 사용하세요

구성: '크롬도금 스틸 블레이드, 우드손잡이' 분무기, 전지가위, 모종삽2종, 갈퀴, 끈(30미터), 가방 포함



손도구 앞치마 4종세트

15,000

10,000원

기본도구만 앞치마에 담았다! 가든도구 5종세트입니다.

구성: 저탄소 강스틸블레이드, 크롬도금, 우드손잡이(도구 길이 약 25.5cm), 갈퀴2종, 모종삽 2종

어린이 앞치마 4종세트

11,250

7,000원

어린이 텃밭 정원에 필수품 어린이가 텃밭 활동에 필요한 정원 손도구들을 귀여운 앞치마 안에 모두 담았습니다.

구성: 무독성 코팅 스틸블레이드/우드손잡이, 삽2종, 갈퀴, 앞치마 포함



2만원 이상 구매시 재배백 사은품 증정(넬러드재배백/ 당근재배백 중 랜덤 발송)

- 어디든 간편하고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는 텃밭 상자형 플라스틱 백입니다.

blog.naver.com/gardenjoa777 가든조아:031-712-7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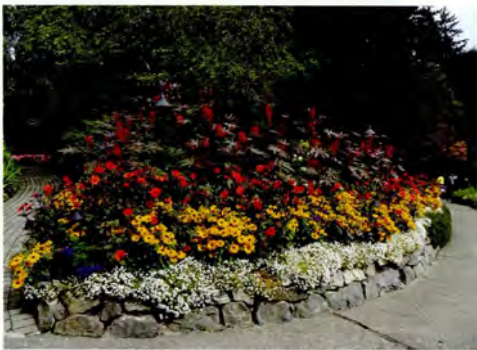
가든인 컬럼

세계의 정원, 혼합과 혼성의
융복합 식재로 변화하고 있다.

글 사진 박 공 영 우리씨드그림 회장, 이학박사



우리는 요즘 정원가꾸기가 열풍에 가까울 정도로 봄을 일으키고 있다. 그래서 가까이는 판교나 광교의 단독주택들이 최고의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고 경기권의 전원주택이나 펜션도 점차 정원이란 코드가 그 가치를 형성하기도 한다. 많은 전원 주택단지나 단독주택에서 정원의 아름다움과 품격이 그 마을 혹은 단지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고 있다. 아름다운 정원이 잘 가꾸어진 단지가 그만큼 시세도 잘 나오고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아직 우리는 정원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필자는 지금까지 '우리넷'을 통해 지난 10년동안 대한민국의 정원에 대한 물음과 가이드를 동시에 진행했었다. 그 결과 이제 광화문 광장에도 그리고 남산에도 판교에도 또 전원주택이나 아파트의 작은 화단에도 혼합식재가 기본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그리고 '우리꽃'이라는 기업을 통해서 자체 품종개발은 물론 해외 고품질의 품종을 도입하고 국내 보급에 앞장 서 이제 웬만한 품종은 국내서도 쉽게



같은 시기에 피어나는 꽃과 조경자재의 융복합 식재



관목과 일년생의 복합정원

구할 수 있는 품종 다양화를 이루었다. 15년을 헤아린 결과이다. 그런데 우리의 정원은 아직도 선진국의 정원 흉내만 내고 있는 현실이고 이도 식물의 특성과 품종의 이해가 떨어져 만족할 만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품종간 화색의 배식이나 키의 배식 그리고 화기의 배식, 생리 생태적인 배식까지는 엄두도 못내는 게 실정이다. 그래도 '우리꽃'을 비롯하여 몇몇 정원사를 둔 회



여러종의 일년생을 이용한 융복합식재



수많은 종류의 꽃과 여석이 어울려진 융복합 정원

사들이 한국의 정원을 선도하고 있는 것은 다행한 일이다. 그러나 필자와 우리꽃의 정원사들은 최근 깊은 고민에 빠졌다. 최근의 해외 선진 정원의 트렌드가 빠르게 바뀌고 있는 것을 감지했기 때문이다. 그것은 전통적인 혼합, 혼성식재에서 벗어나 혼합과 혼성의 융복합 식재로 변화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있기 때문

이다. 대한민국의 종합적인 현대식 정원은 이제 겨우 걸음마 단계가 정착하려 하고 있다. 그런데 다시 10년의 격차를 한 번에 줄여야 하는 시대적 변화를 어떻게 고객들에게 설명해야 할까 하는 고민이 우리에게 부담으로 다가 오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호 품종도 변화하고 있고 정원의 구조적 소재 또한 변화를 피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지금 세계에서 불고 있는 정원의 트렌드는 혼합식재와 혼성식재를 결합한 융복합식재(필자가 우리식으로 표현)는 단순한 군락의 반복과 계절적 생리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혼합, 혼성식재의 결합이 아니라 정원의 배식의 모든 구성요소를 융합한 배식의 한 형태



일년생과 채소, 다년생이 어우러진 정원



콘테이너 정원의 배식법이 융복합의 기본이다.

를 이룬다. 화색과 키, 화기, 그리고 생리, 생태적 특성을 한 계절에 동시에 구현하는 식재방법인 것이다. 쉽게 말하면 전통적인 혼합 식재는 식물의 개화기간이 각각 다른 여러 가지 식물들을 한 장소에 심어 그들 간의 단점을 보완하여 매 계절 다른 꽃이 피고 지는 배식 방법이다. 혼성식재는 주로 구근을 많이 이용하는 데 어떤 특정한 계절에 어떤 식물이 화려함을 자랑하고는 휴면에 들거나 생육이 매우 불량한 경우 그 식물과는 다른 계절에 나고 꽃을 피우는 식물들을 최소 2종 이상 같은 장소에 심어 서로의 단점을 극복하는 효과를 거두게 하는 배식방법을 말하는 것이다.



정원 한 칸에 일년생과 다년생의 융복합식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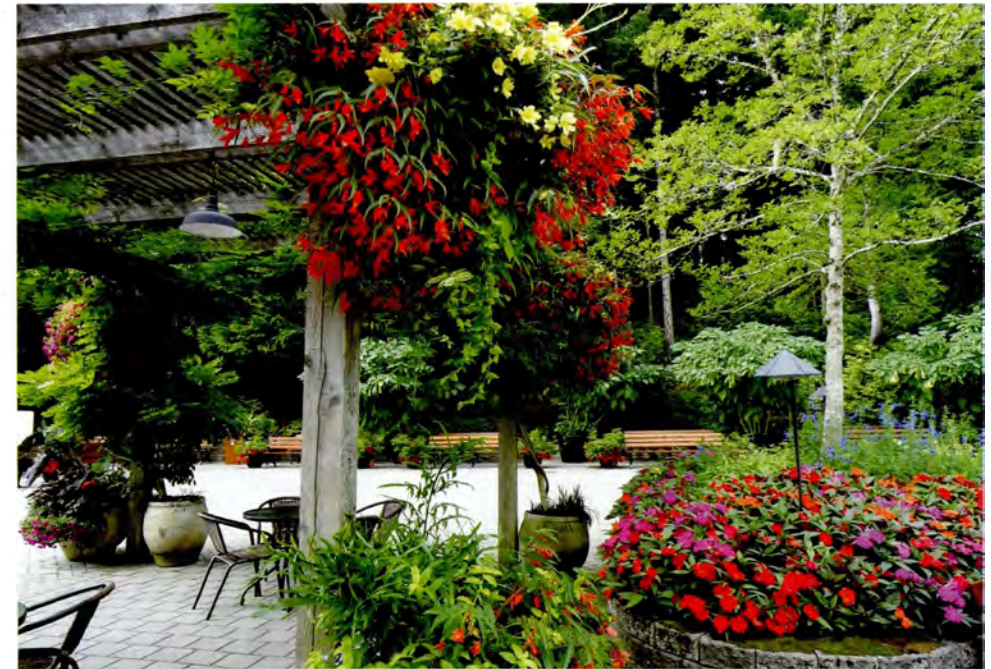


정원의 모든 식물 구성원이 모두 같은 시기에 복합적으로 꽃을 피워내야 한다

그러나 융복합 식재는 혼합하는 식물들의 장점을 결합함으로써 더욱 더 화려하고 고급스러워지는 배식의 개념과 혼성식재의 경우도 생육기가 다른 식물들 같은 장소에 심는 것이 아니라 생육기가 같으면서도 서로 더욱 보완해주고 장점을 살려주는 방법을 말하는 것이다. 때문에 1년생, 2년생 다년생 구분이 없고 구근식물, 채소, 허브 등의 구분이 없이 결합하고 또, 정원의 디스플레이 자체도 함께

적용하는 융합의 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민족의 빠른 적응력이 발휘되어 우리의 정원의 다양성이 웬만큼 진척이 있고 품종 또한 세계적인 품종보급이 거의 선진국 수준에 도달했다고 판단된 지금 세계의 트렌드를 빨리 읽어내고 우리만의 것으로 재창조하여 우리의 정원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행잉바스켓의 배식 형태가 정원배식의 전면으로 등장



혼성식재가 단순히 단점을 보완하는 방식이 아니라 시너지효과를 배가시키는 식재방법으로서의 인식전환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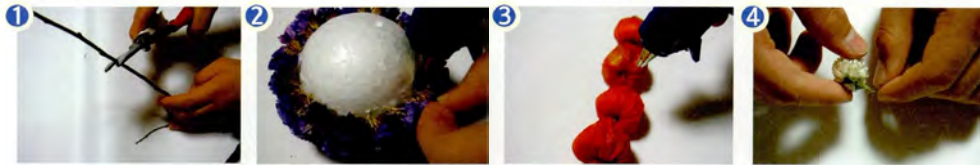
황금고구마, 삼백아, 일파텐스, 메리골드 등의 1년생과 칸나, 역세, 후드베기아 등의 다년생과 해당화, 장미 등의 관목과 꽃바디에서 꽃을 한껏 물린 돌고래의 비상이 돋보이는 융복합정원



자연의 부산물을 건조한 것을 이용한 모빌



글 사진 우정 아
가든 코디네이터 / KHDA(한국원예디자인협회)
항원회장



정지, 전정 후 나온 나뭇가지 중에 모양이 특이한 것을 골라 가지 끝 부분을 잘라 준다

정원에 핀 꽃 중에 드라이가 가능한 것을 미리 말려 둔다. 스타처스는 꽃 부분만 잘라 스티로폼에 촘촘히 붙인다.

파리는 안에 열매 부분을 분리하고 겹질만 말려 낱싹에 줄줄이 끼워준다.

천일홍은 줄기 부분에 낱싹줄을 붙인다.



준비된 재료를 나뭇가지에 균형이 맞도록 묶어 준다.



>> 드라이플라워(건조화)

건조화는 1532년경 이탈리아 Kneeh가 식물을 일러스트 표본으로 만든 것이 오늘날 건조화의 기원이라 할 수 있다. 식물의 각 기관인 꽃, 잎, 줄기, 과실, 종자, 뿌리 등을 자연 건조시키거나 화학 또는 물리적인 처리로 건조 및 가공시킨 것이다. 건조방식에는 자연건조(가꾸로 매달아 말리기, 놓혀 말리기, 세워 말리기, 그늘에서 말리기, 상자에서 말리기, 자생지에서 말리기), 열풍건조, 동결건조, 저온건조, 글리세린 흡수 후 건조, 매물건조, 누름건조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자연건조가 제일 간편한데, 수분 함량이 적은 것이 좋다.

Material



건조 나뭇가지 건조 백일홍 건조 스타처스 건조 파리 건조 천일홍 낱싹줄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기업'

종자 종묘 대표기업

물품을 판매하는 기업은 많지만, 같은 가격으로
물품, 기술, 노하우를 함께 판매하는 기업은
CZ입니다.

종자	꽃묘	프러그	구근	조경용 수목
일반초화 종자 다년생초화 종자 야생화 종자 채소 종자 등	일반초화 꽃묘 다년생초화 꽃묘 야생화 꽃묘 등	일반초화 프러그 다년생초화 프러그 야생화 프러그 삽수 프러그 등	춘식구근 추식구근 등	연산홍 자산홍 남천 등



농업회사법인 (주)씨제트

대표전화 031-444-1488
팩스 031-444-1477

주소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67 3층

홈페이지 www.czcorp.co.kr / 쇼핑몰 www.czmart.co.kr

COLOUR IN THE GARDEN

Blue Flowers

파란색은 늘 우리에게 친근하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면 평온하게 들어오는 파란하늘이 그렇고, 온갖 생명을 품고 유유히 흐르는 강과 바다가 그렇다. 파란 하늘과 강과 바다는 늘 파란색으로 색을 입히지만 그 깊이에 따라 혹은 대기의 움직임에 따라 열고 질음의 차이가 있다. 너무 짙으면 어둡기도 하고 때로는 차갑게 다가오지만, 옅은 파란색의 경우는 맑으면서도 신비로운 느낌마저 든다. 우리들의 시야에 들어오는 전체의 색채 중에 반이 파란색인 이유는 일상에서 느껴지는 불안한 마음을 차분하게 달래주기 때문일 것이다. 언제 보아도 질리지 않는 파란색, 파란색은 특히 더운 여름 화단에 안정맞춤이다. 덥고 뜨거운 여름 날씨로 지쳐있을 때 정원에서 파란색의 제비고깔꽃(엘파눔)이나 물망초 등의 꽃을 보면 시원한 느낌이 들면서 기분이 좋아진다. 늘 파랗지만 늘 똑같지 않은 파란색 꽃(Blue Flowers)의 매력을 정원으로 끌고 들어와 하늘과 땅 사이에서 펼쳐지는 정원의 아름다움을 마음껏 느껴 보자.

오도

품무학교생태농업전공부 교사 / 일본 惠泉女學園園藝生活學科에서 화단설계 전공, 전 여미지식물원, 천리포수목원 근무



아가판서스 '스트림 코티지'
Agapanthus Stream Cottage
백합과·속근초
▶ 7월 순 4월 ↓ 0.8-1m



볼로초류
Agapanthus sp.
국화과·일년초
▶ 6월 순 3월, 10월 ↓ 0.5m



아주레아양쿠사
Anchusa azurea
지치과·속근초
▶ 6월 순 4월, 10월 ↓ 0.5-1m



블란다 아네모네
Anemone blanda
미나리아재비과·속근초
▶ 4월 순 3월, 10월 ↓ 0.1m



허수타시마 매발톱꽃
Aquilegia viscosa subsp. hirsutissima
미나리아재비과·속근초
▶ 5월 순 4월, 10월 ↓ 0.5-0.8m



아우스트랄리스 밭티시아
Baphis australis
콩과·속근초
▶ 6월 순 3월, 10월 ↓ 1-1.5m



보리지
Borago officinalis
지치과·일년초
▶ 6월 순 3월, 10월 ↓ 0.5-1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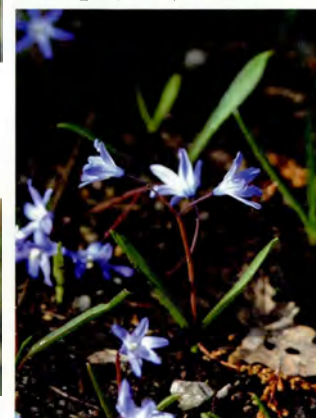
무푸로캐롤레아 부글로소이데스
Buglossoides purpurascens
지치과·속근초
▶ 5월 순 3월, 10월 ↓ 0.6m



초롱꽃류
Campanula sp.
초롱꽃과·속근초
▶ 6-7월 순 4월, 10월 ↓ 0.5-1m



글로리오우스스 케아노투스 '앵커 베이'
Ceanothus glaucus 'Anchor Bay'
갈매나무과·상록활엽관목
▶ 5월 순 3월, 10월 ↓ 0.5m



루킬리에 치오노독사
Chionodoxa lucillae
백합과·속근초
▶ 4월 순 3월, 10월 ↓ 0.5m



현호색 '토리 엠피'
Corydalis 'Tory MP'
현호색과·속근초
▶ 5월 순 3월, 10월 ↓ 0.3m



철국대류
Echinops sp.
국화과·속근초
▶ 7월 순 3월, 10월 ↓ 0.5~1m



메디아 노루귀
Hepatica x media
미나리아재비과·속근초
▶ 4월 순 3월, 10월 ↓ 0.2m



히아신스 '블루 스타'
Hyacinthus orientalis 'Blue Star'
백합과·속근초(온실)
▶ 1월 순 3월, 10월 ↓ 0.3m



붓꽃 '임페투우스'
Iris 'Impetuous'
붓꽃과·속근초
▶ 6월 순 3월, 10월 ↓ 0.5~1m



트란실바니카 노루귀
Hepatica transilvanica
미나리아재비과·속근초
▶ 4월 순 3월, 10월 ↓ 0.5m



디류사 리소도라 '스타'
Lithodora diffusa 'Star'
지치과·속근초
▶ 5월 순 3월, 10월 ↓ 0.6m



디류사 리소도라
Lithodora diffusa
지치과·속근초
▶ 5월 순 3월, 10월 ↓ 0.5m



자니아이 리소도라
Lithodora zahnii
지치과·활엽관목
▶ 5월 순 3월, 10월 ↓ 0.5~1m



메코넬리스류
Meconopsis sp.
양귀비과·일년초
▶ 6월 순 3월, 10월 ↓ 0.5~1m



비르기니카 갯지치
Mertensia virginica
지치과·속근초
▶ 5월 순 4월, 10월 ↓ 0.5m



접시꽃 '프림리 블루'
Malva 'Primley Blue'
아욱과·일년초
▶ 6월 순 3월, 10월 ↓ 1~2m



무스카리
Muscari amieniacum
백합과·속근초
▶ 4월 순 3월, 10월 ↓ 0.2m



라티폴리움 무스카리
Muscari latifolium
백합과·속근초
▶ 4월 순 3월, 10월 ↓ 0.2m



카파도키움 자반풀
Omphalodes cappadocicum
지치과·속근초
▶ 5월 순 3월, 10월 ↓ 0.5m



수련 '디렉터 조지 티 무어'
Nymphaea Director George T. Moore
수련과·속근수생식물
▶ 4월 순 3월, 10월 ↓ 0.3m



페리칼리스 로얄티 시리즈
Pericallis x hybrida Royalty Series
국화과·속근초
▶ 5월 순 3월, 10월 ↓ 0.5m



릴리오히아신스 무릇
Scilla lilhyacinthus
백합과·속근초
▶ 4월 순 3월, 10월 ↓ 0.3m



페리칼리스 로얄티 시리즈
Pericallis x hybrida Royalty Series, 01
국화과·속근초(온실)
▶ 1월 순 4월, 10월 ↓ 0.4m



롱기폴리아 풀모나리아
Pulmonaria longifolia
지치과·속근초
▶ 1월 순 4월, 10월 ↓ 0.4m



아스퍼룸 컴프리
Symphytum asperum
지치과·속근초
▶ 5월 순 3월, 10월 ↓ 0.6~2m



다이포미스 빈카
Vinca difformis
협죽도과·상록활엽만경목
▶ 5월 순 3월, 10월 ↓ 0.5m



제비꽃 '더치스 팜'
Viola odorata 'Duchess de Parme'
제비꽃과·속근초
▶ 2월 순 3월, 10월 ↓ 0.2m

- 가든인 생생정보 -

가을의 품격을 지켜드립니다.

가을에 쓰러지지 않는 역사 연출

역새는 가을의 대표적인 식물이다. 하지만 많은 경우 역새는 한창 좋아야 할 가을에 키가 커서 종종 쓰러져 아쉬움을 달래야 하는 경험이 많이 있다. 이러한 아쉬움을 날려보낼 간편한 방법 한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바로 생장조절제 '레스모'를 추천한다. 6월중순경 역새 전면에 살포하면 생장억제의 효과가 있다. 그러면 키가 알맞게 자라 가을에도 쓰러지지 않는 평정한 가을 역새를 경험할 수 있다.



인건비 절감을 위한 최적의 선택

선택적 제초제 이용법

아직도 현장에서 화분과 제초제를 이용하는 방법을 모르거나 알면서도 사용하기가 두려워서 사용하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안내해드립니다. 화분과 제초제는 선택적제초제로 바랭이, 독새풀, 피 등 1년생 화분과만 선택적으로 고사시키는 농약이다. 다시 말하면 화분과가 아닌 식물이 식재되었거나 파종된 곳에 1년생 화분과 잡초들이 많이 발생되었을 때 이 약제를 살포하면 된다. 그러면 원래 식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화분과잡초만 선택적으로 고사시켜 제초인건비를 절약시킬 수 있다.



약제: 뉴원싸이드/한국삼광(주)

희석배율: 물20리터 / 약제40ml

시 기: 잡초의 잎이 3~4엽정도 나왔을 때

효과: 이형성 제초제로서 약제 살포후 일

주일 정도 지나야 잎이 붉게 되면서 고사가 진행된다.

실내의 자연 인테리어

아름다운 절화의 장기간 관상법

절화를 물에 꽂아 신선한 상태로 유지되는 기간을 절화의 수명이라고 한다. 수명을 길게 유지시켜 꽃을 오래도록 감상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미생물 번식을 막기 위해 물에 락스를 한두 방울 정도 떨어뜨려 준다.
2. 너무 고온에 노출시키지 않는다.
3. 꽃의 물을 자주 갈아서 노화방지와 미생물 번식을 막는다.
4. 줄기의 절단면을 사선으로 잘라주어 물의 흡수면적을 최대한 넓혀준다.



식물의 품종특히

품종보호 등록

핸드폰시장에서 삼성과 애플의 특허권 분쟁이 치열하다. 앞으로는

모든 산업에서 특허는 중요한 화두이다. 우리가 정원에서 기르고 있는 식물 또한 개발자를 보호하기 위한 품종보호 등록제도가 있다. 개인이나 기업에서 개발하여 국립종자원 또는 산림청에 출원한 식물체는 시험재배를 통해 신규 품종으로 인정되면 종자산업법에 의거, 품종보호 등록이 된다. 다시 말하면 개발자의 허락없이 타인에 의해 무단으로 증식, 복제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다. 권리를 침해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우리나라도 식물산업이 발전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을 통해서 많은 신품종이 개발되어야 한다. 또한 현장에서도 개발된 품종에 대한 보호가 지켜져야 계속적으로 좋은 품종이 개발될 수 있고 외국으로 수출의 밑거름이 될 수 있으리라 본다.

쌈채소와 조경소재로도 유용한

당귀

당귀하면 일반적으로 떠오르는 단어는 약용식물이다. 실제로 대표적인 약용식물로 많이 재배하고 있으며 은은한 향과 쌉싸름한 맛을 가지고 있어 연한 당귀 잎은 쌈채소로도 이용이 가능하다. 한편으로 잎이 크고 날개를 펴 편듯한 모습은 시원한 느낌을 주며 고급스런 자주색 꽃은 앞으로 조경소재로도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으리라 본다. 식물이 크고 음지에도 잘 적응하여 음지의 포인트식물 또는 잎과 뿌리에서 나오는 향이 좋아 허브정원을 만들 때 이용해도 좋을 듯하다. 우리의 정원 한곳에 심어 어린 잎은 쌈채소로, 나중에는 아름다운 정원식물로 감상해보면 어떨까 한다.



GARDEN & BOOK

『천년 세월로 빛은 교토의 정원』

저자: 강 호 철

[신간] 조경가의 시각으로 본 일본정원의 정수

평화를 사랑했던 시정 '헤르만 헤세'는 집을 옮길 때마다 새로운 정원을 만들었다. 그에게 정원은 문명으로부터 벗어난 하나의 성소였다. 그는 정원을 가꾸고 돌보는 즐거움을 바탕으로 불멸의 작품을 남길 수 있었다. 지구상에는 국가나 민족을 대표하고 상징하는 여러 형태의 개성 있고 독특한 정원양식들이 전해오고 있다. 이들 정원은 하나 같이 그 영역의 환경을 바탕으로 정치, 경제, 사회적 여건과 시대상이 반영되어 다듬어지고 진화되며 발전한 산물들이다.

책은 그중 일본 정원에 대해 소개한다. 일본식 정원은 공서고금을 막론하고 정원 애호가들이 가장 사랑하는 정원이다. 그중에서도 가장 다양하고 매력적인 정원을 만나볼 수 있는 곳이 '교토'이다. 교토의 정원에는 '일본다움'이라는 특유의 모습과 향기가 스며있다. 오랜 세월을 걸쳐 숙성되었기에 그 맛과 향이 깊고 은은하다. 저자인 강호철 교수(경남과학기술대학교) 그동안 교토를 15회 이상 다녀왔다. 책은 대부분 2014년 4월, 5월, 활기차고 매혹적이다 못해 환상적인 교토의 봄을 700여장의 사진으로 보여준다. 공간에 따라 궁궐, 사찰, 개인주택, 식물원과 미술관, 교토의 녹색환경 총 다섯 영역으로 구분했으며, 정원에 대한 객관적인 서술과 함께 주관적인 견해도 함께 기술되어 있다.

책에서 보여주는 교토의 정원은 멋진 경관만 담고 있지 않다. 저자는 조경가로서 공간과 구성요소들의 특성, 이용 행태를 살피고 느낀 것을 기록으로 남겼다. 이에 대해 저자는 "우리나라 정원문화 발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간절함도 담았다"고 말한다.

저자소개

강 호 철

국립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건설환경공과대학 조경학과 교수

- 진주농림고등전문학교(5년), 동국대, 한양대 환경대학원, 성균관대 대학원 조경학과(공학박사)
- 한국종합무역센터와 '86 아시안게임 기념공원' 등 다수의 조경시공과 감리
- 문화재청 문화재전문위원(천연기념물 분과), 경상남도 문화재위원
- 저서, 현대한국조경작품집, 조경설계와 시공관리, 세계의 도시환경과 문화조경 등
- 열악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지금껏 승용차를 갖지 않고 걸어서 출퇴근하며 녹색교통과 환경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실천 활동가
- 세계도시의 녹색환경과 문화를 주제로 25년째 외국도시를 답사하며 기록으로 남기고 있다(250여 도시를 답사한 기록 30여만 컷 소장)

일본정원 이해와 동시에, 자연과 정원에 관심이 있거나 직접 정원을 조성할 분들에게 유용한 길잡이
-오취정 한양대학교 명예교수, 전 자연공원협회 회장

그가 포커스를 맞춘 정원은 인간애적인 향기와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다.

-강병국 이학박사, 과학도서 저술가

아름다운 일본정원 산책은 정원을 소요하며 가지는 마음의 여백을 선물하는 좋은 시간

-이유미 국립수목원장



10%
~20%
OFF 인하

정기구독 안내

[구입처]

오프라인 서점

교보문고

광화문점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

영등포점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중로 15 타임스퀘어 멀티플렉스 2층

강남점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465 교보타워 지하1, 2층

목동점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1 CBS지하 1층

잠실점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269 롯데캐슬프라자 지하1층

인천점 :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술로 138 이도타워 지하 1층

부천점 :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연동로 1 부천역사 7층

안양점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311 CGV 1번가 5, 6층

분당점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 55 분당파스트타워 지하1층

천안점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만남로 43 신세계백화점 충청점 3층

대구점 : 대구광역시 중구 국제보상로 586 교보생명빌딩 지하1층

설템시티점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남대로 35 신세계 설템시티 5층

부산역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658 교보생명빌딩 지하 1층

창원역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04 마이우스 빌딩 지하1층

영풍문고 잠실점, 영광도서(부산), 남포문고(부산), 녹산문고(수원)

온라인 인터넷

교보문고 www.kyobobook.co.kr 알라딘 www.aladin.co.kr

[입금방법]

카드 결제 및 문의사항 : 031-712-7009

무통장입금

예금주 : 우리꽃영농조합법인

농협 355-0030-2359-03

▶ 입금 후 반드시 주소와 성명을 알려주셔야 배송가능합니다.

[정기구독방법]

1년 16.6% 할인 (100,000원)

2년 20% 할인(192,000원)

Gardenin

발행처 우리꽃영농조합법인
발행인 김영채 경희대학교 명예 교수 / 농학박사
박공영 우리씨드(Urised)그룹 대표 이학박사
고문 이순영 前 함평 농업기술센터 소장
편집인 서준혁
주소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전상미로 924번길 87
전화 031-712-7009
팩스 031-634-7991
전문위원
김광두 농학박사 / 前상명대학교 겸임교수
김광춘 대림예종묘(주)대표
김귀순 (주)그린페이퍼 대표
박신애 건국대 생명환경과학대 교수
안원식 농학 박사 씨드림대표
우정아 가든 코디네이터 한국원예디자인협회 향원회장
유봉수 솔개그늘 대표
윤정식 원광디지털대학교 한방건강학과 겸임교수
윤평섭 농학박사 / 삼육대학교 명예 교수
이정식 농학박사 / 前서울시립대 환경원예학과 교수
이종석 농학박사 / 서울여자대학교 명예 교수
최주건 농학박사

디자인&인쇄 워킹카우42 Workingcow42@naver.com

010 7399 5488



(주)한국원예저자

“미림가든센터” 의 새이름

조이가든센터

OPEN

2015년 10월 20일

“미림가든센터” 가

“조이가든센터” 로 변경,이전합니다.

총 500평 규모의 넓은 매장에서 쾌적한 환경과
다양한 상품으로 고객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조이가든센터

지하철 이용시(4호선)

선바위역 6번출구, 경마공원역 6번출구에서 약 700M (도보 10분)

버스 이용시(환경사업소 하차)

일반 11-3, 17, 917 / 간선 441, 541, 542 / 마을버스 3-1, 6, 7-2

환경사업소 정류장 하차, 정류장에서 약 600M (도보 8분)

경기도 과천시 상하별1로 70

(지번 : 과천동 231-4)

Tel. (02)585-5346, 503-7080

Fax. (02)3473-8989

검색창에 '조이가든' 검색



Nice to  you!

가든엔씨앗

정원용 고급 종자

선 100



우리꽃연구소
URISEED INSTITUTE

467-872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진상미로 924번길 87

Tel 031.634.7990

Fax 031.634.7991

www.gardenjoa.com(100선 사진 지